



# 남북강선

3

주제 110(2021)  
루게 제 379호 월간

# 차 례



표지: 조국의 노래를 부르는  
재중동포청년들  
주제108(2019)년 촬영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성원들이 조국의 노래를 배우고있다. 몸은 멀리 이역에 있어도 언제나 조국의 노래를 부르며 조선민족의 긍지를 안고 사는 동포청년들이다.

본사기자 김금진



뒤표지: 해칠보의 달문

편집: 리경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진행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설명절경축공연 진행	16
새로운 승리를 향한 첫걸음	18
주체적임을 강화하는것은 더 큰 승리의 담보	19
철강재생산으로 들끓는 황철	20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2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새 무장력의 탄생	24
일 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26
인민을 위한 려정	27
존경받는 녀성들	28
어제날의 처녀교환수	30
《태성》콜라겐제품들	30
첨단기술개발로 권위 획득	32
늘어나는 산림면적	34



조국의 품에 안겨

인민의사, 그 부름속에 . . . . . 36

3월의 절기와 민속 . . . . . 36

수 기

보금자리 . . . . . 38

과학환상속에 사는 청년 . . . . . 39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경축행사 진행 . 40

민족교육의 명맥을 지켜 . . . . . 41

30돌기의 년륜을 아로새겨온 애국애족활동 . . . 42

《광물질비타민》-옥류약수 . . . . . 50

대 담

시식회를 통해 본 조선민족음식 . . . . . 51

민족의 향기

정통무도 래권도 . . . . . 52

그날의 합성은 오늘도 . . . . . 54

명승-백운산 . . . . . 56

조선속담(파렴치성) . . . . .	39
상 식	
선조들이 즐긴 공놀이 . . . . .	55
평양종 . . . . .	56
유모아	
괜한 걱정 . . . . .	52



21



30



32



44



56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혁명적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선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가 주체110(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는 위대한 사상과 령도에술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새 승리로 인도하는 조선로동당의 향도력과 전투력이 비상히 과시되고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투쟁기세가 격양되고있는 시기에 소집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전원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혁명, 인민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열광의 환호를 터쳐 올리였다.

전원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부장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당, 행정책임일군들, 도급지도적 기관 책임일군들, 시, 군당책임비서들, 중요공

장, 기업소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화상회의체제로 방청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운영집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의정토의에 앞서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게 된 기본취지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가 당 제8차대회의 사상과 정신에 공감되고 양양된 대중의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당대회결정관철에로 강력히 인도함으로써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부터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수 있는 구체화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안겨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당대회결정은 앞으로 5년동안 각 분야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장기과업들이므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착시켜 시달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특히 비상방역상황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경제건설을 활기차게 내밀며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조치를 취하려는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이와 함께 현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저애하는 부정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도 진지하게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원회의에서 토의할 의정들을 제기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1.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2.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
3.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함에 대하여
4. 《조선로동당규약해설》 심의에 대하여
5. 조직문제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보고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먼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첫해 경제사업을 잘 조직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새 전망목표를 달성하는데서 첫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5개년계획도 첫해 계획이 잘 세워지고 제대로 집행되어야 최종 목표점령에로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보고는 새로운 5개년계획은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모든행과 결별하고 새 출발을 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당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지켜보고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당 제8차대회 결정집행의 성과여부를 좌우

하는 올해 사업을 잘하자면 그 작전도, 설계도인 계획부터 혁신적으로 실속있게 수립하고 전당, 전국, 전민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러나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것이 없다고 분석하면서 보고는 금방 당대회에서 결정하고 당대회문

헌에 대한 집중학습과 방향토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올해 경제사업계획에 당대회의 사상과 방침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안목과 특색한 책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주요경제부문들의 계획을 작성하는데서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들에서 기

안한 수자들을 거의나 기계적으로 종합하다보니 어떤 부문의 계획은 현실가능성도 없이 주관적으로 높여놓고 어떤 부문들에서는 정비보강의 미명하에 능히 할수 있고 반드시 하여야 할것도 계획을 낮추 세우는 폐단들이 나타났다.

보고는 이러한 경향들이 우심하게 나타난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사조건이 불리하고 국가적으로 영농자재를 원만히 보장하기 어려운 현 상태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5개년계획의 첫해부터 알곡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워놓아 지난시기와 마찬가지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수 없게 하였다.

반대로 전력공업부문과 건설부문, 경공업부문들에서는 기본지표생산계획을 연말에 가서 비판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낮추어 기안하는 편향을 범하였다.

지금 금속, 화학, 기계공업부문의 주요공장, 기업소들과 전국의 지방산업공장들, 농업부문에서는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보장해줄것을 애타게 요구하고있으며 탄광, 광산들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들이 존재하고 인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전력공업성에서는 주요공장, 기업소들의 현재 전력수요에 맞추고 발전기들의 원성능을 회복하는데 힘을 넣는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올해 전력생산계획을 현재의 전력생산수준보다 낮게 세웠다.

건설부문에서도 자재와 로력보장을 구실로 평양시 살림집건설계획을 당대회에서 결정한 목표보다 낮게 세웠으며 이것은 경제부문 일꾼들이 조건과 환경을 걸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흥내나 내리는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다.

보고는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을 제공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당대회의 권위를 보위하기 위한 정치적문제이라고 하면서 당중앙은 올해 평양시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기로 하였다고 언명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 자재보장조건과 선질후량에





빙자하여 올해 신발생산계획을 형편없이 낮게 세운데 대하여서도 심각하게 비판되었다.

다른 부문들에서도 계획을 낮게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초과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실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게 발전지향성과 력동성, 견인성, 과학성이 보장된 목표들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고는 강조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올해 경제사업을 조직하면서 생산능력과 토대를 확장하기 위한 작전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문제를 언급하시였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현행생산을 내밀면서 앞으로 생산을 장성시킬수 있게 새로운 생산기지들을 일떠세우고 락후하고 뒤떨어진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며 필요한 공정들을 보강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에 제기된

대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고리로 설정하고 투자를 집중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우리에게 실지 절실하고 하나의 성과로 열가지 얻을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침입식으로 힘을 집중하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

보고는 경제사업에서 특별히 중시하고 혁신적으로 구현하여야 할 문제는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계획에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요구되는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고 되어있지만 국가적인 보장대책을 세운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반드시 수입해야 할 물자도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도 능력껏 사다 쓰라고 하는것은 경제지도기관들이 자력갱생의 구호를 외곡하여 자기의 책임을 아래단위에 밀어버리는 가장 전형적인 태만행위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국가의 경제권과 통제력이 점차 소실되고 국영기업소들을 비법적인 돈벌이에로 떠미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보고는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기업체들의 생산물을 중앙집권적으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생산소비적련계를 맺어주어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사업체제로 시급히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중요하게 기간공업부문의 기업체들과 외아들공장들에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주고 국가적인 장려조치와 특혜조치를 취하며 수입지표들을 국내생산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올해 경제사업을 조직하는데서 인재를 중시하며 각 분야의 과학기술인재와 관리인재, 당일군들을 육성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지금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데서 제일 걸린것은 인재가 부족한것이며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혁신하자고 하는 지금 새형의 인재를 키우는것은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고있다.

당과 국가사업,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자면 인재육성사업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보고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장차 나라의 한개 부문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 행정일군, 당일군을 육성하는것을 5개년계획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자기 분야에 필요한 인재는 자체로 키우는 원칙에서 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짜고들며 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 부문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모색하는데서 인재들을 먼저 찾아내고 그들에게 의거하는것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인재를 장악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면 그 어떤 일도 할수 없으며 당대회결정도 관철할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인재를 대담하게 등용하고 실천속에서 육성하여 당과 국가앞에 내세우는것이 모든 일군들의 공통적인 사업

태도, 사업기풍으로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착상력과 조직전개력, 장악력이 우수한 경영인재, 관리인재들을 발굴하고 의도적으로 키우며 사람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할줄 아는 당일군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첫째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중지방을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보고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개별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반당적, 반인민적행위라면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부문과 단체의 모자를 쓰고 자행되는 더 엄중한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이며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고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다지는데서 제일 장애로 된다고 락인하였다.

보고는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고 당의 결정지시집행을 태공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현상을 더이상 그대로 둘수 없으며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하여 단호히 쳐갈겨야 한다는데 대하여 특별히 언명하였다.

보고에서는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 다를바 없는 혁명의 원수, 국가의 적으로 엄중시하고 전면적인 전쟁을 벌리기로 한 당 중앙위원회의 결심이 표명되었으며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쟁에서 모든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 국가기관들과 전체 인민들이 주체가 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국가적인 비상방역규률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발양시키고 인민생활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올해 경제사업을 조직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다음으로 올해 인민경제 부문들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보고에서는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자원개



발 및 채취, 기계공업, 림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 현행생산을 진행하면서 생산도대를 보강하는데서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중점과제들이 제기되고 그 실현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그리고 철도운수부문에서 올해 사업의 중심을 철도를 정비보강하는데 두고 철길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보고는 건설건축공업부문에서 평양시에 1만 세대의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고 하부망공사를 계획대로 끝내는것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과 지방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세멘트생산능력확장사업을 적극 다그치고 각이한 건축품들에 대한 수요를 책임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큰 몫을 맡고있는 경공업부문이 모든 잠재력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경공업제품생산을 최대한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원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 설비들의 원성능회복과 새로운 생산능력조성, 지방공업과 단천지구공업총국의 활성화를 올해 사업중심으로 규정하시였다.

보고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시, 군강화로 선을 관철하고 지방공업공장의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기 위하여 올해에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번듯하게 꾸려 내세우기로 하였다는것을 강조하면서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경공업성에서 이를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수산부문에서 올해 물질기술적도대를 강화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어로활동과 양식, 양어를 활발히 벌려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덕을 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상업, 체신, 국토환경, 도시경영, 대외경제, 관광부문에서 올해 수행하여야 할 주되는 과제들이 상세히 지적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올해 농업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보고는 농업부문에서 올해 알곡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철저히 집행하여 알곡증산의 안정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착실히 다져야 한다고 하면서 농업성을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에서 농사작전을 예견성 있게 잘하여야 하며 특히 재해성기후에 대처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책을 세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하고 다수확품종재배면적을 늘일데 대한 과업,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한 과업, 품종별특성과 영농과정별에 따르는 과학적인 재배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과업, 영농기전으로 저수확지를 옥토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강하게 내밀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뜨락또르와 농기계생산단위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관개체계와 시설물들의 복원, 관수면적의 확장을 다그치며 간석지건설과 새땅찾기, 토지정리를 힘있게 내밀고 축산물과 남새, 과일, 공예작물생산을 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올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는 영농물자보장을 책임적으로 하며 농업부문에서 허풍을 없애고 농촌리당사업에서 결정적인 개선을 가져올데 대한 문제들이 취급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과학, 문화부문에 나서는 과업들을 언급하시였다.

보고는 과학기술부문에서 올해 현존경제도대를 강화하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며 부문별, 지역별, 단위별로 과학기술인재들을 100% 장악하는 것과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의 자질과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였다.

중등교육부문에서 과학기술인재후비들을 계획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우며 대학들에서 정보기술, 생물공학, 화학, 재료부문 전문가들을 비롯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하여야 한다.

보건부문에서 올해 뚜렷한 개진을 가져오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여러가지 전염성질병들을 결정적으로 없애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새로운 보건시설들과 현재 진척중에 있는 제약공장, 의료기구공장, 의료용소모품공장들의 건설을 일정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고는 침체와 동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문학예술부문의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현실적요구에 맞게 창작창조사업에서 진일보를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출판보도부문에서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로 대중을 고무추동하기 위한 보도전, 언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체육부문에서 각종 경기들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대남부문과 대외사업부문에서 당 제8차대회 결정관

철을 위하여 올해에 확정된 투쟁목표와 사업계획들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을 특별히 언급하시였다.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하여 경제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하는것이다.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권한타발, 조건타발만 하며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던 낡은 타성에서 탈피하여 경제적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비상설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경제발전을 저애하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나라의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보고는 계획작성단계에서부터 맞물림을 잘할 뿐아니라 경제부문들간 유기적연계와 협동을 강화하는데 주목을 돌리며 국가경제지도기관들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회피와 본위주의를 철저히 타파하고 서로 목적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보충하면서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실속있게 잘하자면 계획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생산총화를 맵싸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모든 생산단위들이 시달된 생산 및 자재공급계획을 무조건 그대로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지어주면서 요구성을 높여야 하며 계획규률을 흥정하거나 태공하는 현상,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보고는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할데 대한 과업도 제기하였다.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데서 국가적으로 모든 생산물과 수입물자들을 통일적으로, 수자적으로 장악하고 류통시키는 방법을 찾아내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여야 한다.

경제관리문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해결하려면 정치적방법과 경제기술적방법, 행정조직적방법을 옹계 결합시켜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경제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현시기 5개년계획을 향한 시발점에서 경제지도일군들에 대한 당과 인민의 기대는 대단히 크며 현실은 모든 일군들이 자신의 수준과 능력, 잠재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분투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보고는 우리 일군들이 항상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향하여, 5개년계획의 중추점을 향하여 완강하게 돌진하는 정신력과 투지를 발휘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인민경제계획수

행을 법적으로 담보하도록 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인 것만큼 일단 세워진 인민경제계획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흥정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무조건 수행할 의무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법부문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빈틈없이 담보하는것을 중핵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철저히 집행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당사업의 화력을 올해 과업수행에 집중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언급하시였다.

보고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 나타난 심중한 결함은 각급 당위원회들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바로하지 않고 당일군들이 당정책관철의 조직자,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기본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에서는 당조직들에서 올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제기되였다.

당조직들에서는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당결정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는데서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의 구태의연한 당회의운영방법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 이번 전원회의에서 제시되는 과업관철을 위한 당결정을 당중앙의 의도와 광범한 군중의 의사, 자기 단위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집행담보와 책임한계를 정확히 따질수 있게 토의채택하여야 한다.

당결정을 채택한 다음에는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총화하면서 우점과 성과는 확대하고 결점과 편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보고는 올해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당적지도, 정책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는데서 당조직들이 방향타역할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민경제계획수행에 대한 당조직들의 방향타





역할은 본질에 있어서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경제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 그 선상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옹호하는 사업이다.

당조직들은 자기 단위에 시달된 인민경제계획을 드림없이 수행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과 구체적인 작전안을 수립하고 행정경제사업이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적극 밀어주며 나타나는 결함과 편향은 적시에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당위원회들은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애로와 난관을 능숙히 극복해 나가야 하며 특히 당책임일군들이 주관과 독단을 부리지 말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적교양자,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에서는 월생산총화를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총화하는 실무적총화이기 전에 당결정관철정형을 총화하는 당회의로 간주하고 정치적의의가 있게 진행하여 일군들과 생산자대중을 각성시키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며 앞선경험을 일반화하는데서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는 올해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내각과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는 당의 방침이 제시되면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신속있게 벌리며 집행결과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행정경제일군들을 적극 밀어주어야 한다.

당정책관철에 헌신분투하지 않고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조건타발만 하면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하지 못하는것을 비롯하여 부정적인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려 일군들을 부단히 각성시켜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연 3일간에 걸쳐 하신 보고를 결속하시면서 한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

에서부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 인민을 위한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새롭게 확정하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일군들속에 내재하고있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비롯한 사상적병집들을 찾아내고 시정할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번 전원회의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시기에 소집되었다고 언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분과별협의회를 통하여 올해 사업계획을 정확히 확정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본 전원회의가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전당의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게 하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시자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비범한 통찰력과 심오한 사색으로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첫째 진군의 명확한 구상을 펼치시고 여러날에 걸쳐 전원회의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시면서 혁명의 지휘성원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인민들에게 전진과 혁신의 강력한 무기를 안겨주신 총비서동지를 우리러 열광의 환호를 터치며 최대의 경의를 드리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복무정신, 혁명의 새승리를 반드시 성취할 철석의 의지가 관통되어 있는 총비서동지의 강령적인 보고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변혁기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전투적기치로 된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을 내각총리 김덕훈동지, 화학공업상 마종선동지,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동지,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동지가 하였다.

토론자들은 총비서동지께서 강령적인 보고서 올해에 전당과 전체 인민앞에 나서는 투쟁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당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계획작성에서부터 옳게 구현하지 못한 결함들을 심각하게 분석비판하였다.

그들은 당과 인민의 커다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 첫째 전투목표를 혁신적으로 과학성있게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함으로써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책무를 다할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토론자들은 5개년계획수행과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보위하기 위한 법적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전당을 당중앙의 령도사상을 진실하게 헌신적으로 받드는 충성의 전일체로 준비시켜 당대회결정관철과 올해 과업집행을 당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히 추동할것을 다짐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분과별협의회가 있었다.

공업, 농업, 경공업, 건설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총비서동지께서 하신 보고의 내용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립각하여 각 부문의 올해 사업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한 토의를 심도있게 하였다.

자기 부문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진지한 사색과 노력속에 새로운 예비와 가능성들이 적극 탐구되고 창발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제기됨으로써 초기에 제출되었던 목표들이 전반적으로 갱신되었다.

전원회의에서는 분과별협의회에서 결정서초안작성과정에 제기된 보충의견들을 종합한 보고가 있었다.

분과별협의회를 통하여 작성된 결정서초안은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적과업들과 방침들이 정확히 구현되고 올해 각 부문별 사업방향과 전투목표들의 과학성과 현실성, 동원성이 충분히 반영된것으로 인정되었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첫째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대회과업관철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 뚜렷한 변화와 실제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될 중대한 결정이 채택되자 열렬한 박수를 터치면서 전원회의결정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철저한 집행의지를 표

명하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 혁명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과의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위협하고 일심단결을 저해하는 악성종양을 단호하게 수술해버릴 혁명적의지와 결심을 천명하시였다.

보고에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정권기관과 법기관들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었다.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들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련합지휘부를 조직하여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한선에서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집중적으로, 다각적으로 강도높이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특히 당조직들이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극복하기 위한 작전을 강도높이 전개하는것과 함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를 비호조장시키는 대상들을 일군대렬에서 단호히 제거할데 대하여 강조되었다.

경제관리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것을 우리 국가의 사회주의적성격을 고수하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현상을 근절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하나하나 모가 나게, 결단성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모든 일군들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저조하게, 말로만 해가지고서는 언제 가도 그것을 종식시킬수 없으며 그 대가를 자기자신과 우리 인민들이 값비싸게 치르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국과 인민, 후대들의 운명을 걸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나타나



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들을 무자비하게 억제소멸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의 보고를 접하면서 참가자들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행위들과의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다시금 새기며 보다 강력한 방법론과 해결책을 받아안았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갈 결심을 굳게 가지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은 당의 전략적이며 정책적인 구호들이 집대성된 정치문건으로서 전당과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주체혁명위업수행에로 고무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당의 권위와 령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발전되고있는 현실은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의 정치적성격과 품위를 백방으로 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수정과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이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들고나가는 할 로선과 전략전술, 정치리념을 집약적으로 반영한 정치적인 구호들로 수정됨으로써 수령의 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절대적인 권위를 옹위하며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수정한 구호집을 당중앙위원회 구호집으로 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 《〈조선로동당규약해설〉 심의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조선로동당규

약해설》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게 된 취지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규약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규약해설집을 잘 만드는 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규약해설집은 응당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시고 이번에 당규약해설집을 심의하여 내려보내면 각급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모든 당사업과 당생활을 당규약상규범의 요구대로만 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충분한 사전연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당규약해설집초안을 조선로동당규약해설집으로 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 《조직문제》를 심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리선권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김성남동지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선거하였다.

오수용동지를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경제부장으로 선거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다.

김동일동지, 김영남동지, 김철수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홍혁철동지, 리경호동지, 최영진동지, 룡군철동지, 정서철동지를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전원회의를 결속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는 상정된 모든 의정들에 대한 토의를 성과적으로 마치였다고 하시면서 지난 4일동안 매일 매 순간 지도기관 성원들이 긴장되고 동원된 속에서 당과 국가사업토의에 진지하게 참가해준데 대하여 감사히 여기며 이는 자기 인민앞에 다진 서약을 엄숙히, 철저히 리행하여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무거운 임무를 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고 표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본 전원회의에서 토의된 하나하나의 의제들은 우리 혁명사업과 당의 강화발전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중요하고도 절박한 우리의 당면과업에 대한 명백한 인식들을 공유하고 뚜렷한 방향을 확정하였다고 하시였다.

또한 사회주의제도의 존립과 발전을 저애하는 내부의 부정적요소들을 제압소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무기와 전당을 무장시키고 불러일으킬수 있는 정치적수단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의를 통하여 우리 당중앙위원회는 문제해결의 출로를 바로 찾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지향시켜나가는 자기의 령도예술을 한층 세련시키고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당 제8차대회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들에게 당대회가 결정한 변혁적과업들을 반드시 현실로 전환시키려는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계획으로 보여 주었다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가 또 하나의 필수적인 자기 발전의 훌륭한 공정을 밟은것만큼 당중앙위원회는 결정된 과업들에 대한 정확한 지도와 철저한 집행으로써 혁명사업을 전진시키고 인민들이 개변된 실상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군들이 올해 사업에서 비상방역사업의 완벽성을 보장하는것이 중요한 과업들중 제1순위라는것을 명심하고 방

역사업에서 엄격하고 철저히 해야 하며 모든 정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최대의 긴장성과 경각심을 견지하고 전국에 강한 방역규율을 세우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과 국가경제의 정비보강, 자립적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하여 당중앙이 이미전부터 예견성있는 준비사업을 진행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시고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경제지도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새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담보하게 될 결정적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전원회의결정을 목숨같이 귀중히 여기고 당결정이 무조건 철저히 집행되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랑하는 자기 인민에게 우리의 충정을 검열받을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모든 동지들이 더 노력하고 분투하여 우리 당의 웅대한 투쟁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혁명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줄것을 부탁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으로 우리 당과 인민의 앞길에 새로운 전진과 승리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사회주의건설사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리정표를 세워주신 총비서동지를 무한한 격정속에 우러르며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혁명앞에, 인민앞에 끝까지 충직할 맹세를 담아 우렁찬 박수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는 끊임없이 투쟁하며 혁신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면모를 더욱 뚜렷이 하고 당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전인민적대진군을 강력히 추동한 력사적인 회의로 우리 당과 주체혁명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설명절경축공연 진행

온 나라 인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의 위력한 실천의 무기, 혁신의 무기를 받아안고 격동되어있는 때에 지난 2월 11일 설명절경축공연이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지도기관성원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과 주요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공연종목들은 조국과 인민을 령도하여 혁명의 년대들을 거대한 변혁과 승리로 빛내여온 조선로동당에 대한 찬가들로 일관되었다.

출연자들은 전대미문의 엄혹

한 난관과 도전속에서도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 조국과 인민의 위상을 만방에 떨쳐온 당의 위대성을 칭송하였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존엄높은 강국의 새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과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하려는 인민의 충성의 일편단심이 흘러넘치는 로동당시대의 명곡들이 련이어 장대를 울리였다.

위대한 당을 노래하는 송가들로 장중하고 숭엄한 음악세계를 펼친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민헌신,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숭고한 리념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함에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총비서동지를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에 전진도상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다 해도 조국과 인민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하다는 진리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았다.

백두의 붉은기, 향도의 당기를 승리의 기치로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위력을 떨치며 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걸어갈 인민의 불타는 충성과 철석의 신념을 풍만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준 공연은 관현악과 남성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로 고조를 이루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무대에 오르시어 훌륭한 예술공연을 펼친 출연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으며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 \*





# 새로운 승리를 향한 첫걸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열린 올해 조국은 년초부터 새로운 승리를 향해 진군의 보폭을 크게 내짚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새해 정초에 첫 상순계획을 완수한것을 비롯해서 조국땅 어디 가나 새해의 진군을 다그치는 인민의 모습을 볼수 있다.

년초부터 석탄생산의 불길을 지펴올려 많은 량의 석탄을 증산하고있는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탄부들과 광구확장 및 정리를 비롯하여 생산토대를 강화하여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는 오석산화강석광산의 광부들, 매일 수백t의 광석을 증산하고있는 룡양광산의 광부들, 다수확의 성과를 이룩할 열의를 안고 례년에 없이 높은 거름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는 구장군안의 농장원들이며 판개용수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알곡증산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는 연안군판개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첨단을 향한 새 기술개발에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고있는 과학자, 연구사들...

세대와 세기를 이어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오직 사회주의 위업의 한길로만 줄달음쳐온 조국인민들의 체질화된 투쟁기풍이다.

그러나 새해 주체110(2021)년의 령정을 뻔 인민의 열의는 전통화된 기풍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하다.

올해는 년초부터 하루하루가 인민들 누구나의 가슴속에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겨준 잊지

못할 나날들이었다.

지난 1월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소식들은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사회주의건설의 획기적전진을 위한 투쟁방향이 명시된 당대회 보고를 인민은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였으며 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소식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을 감격의 환희로 끓게 하였다.

《가슴속에 차넘치는 걱정을 무슨 말로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이 나고 크나큰 행복에 눈곱이 젖습니다.》

《우리 세포당원들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신 자부와 긍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오늘 계획을 150%로 넘쳐 수행하였습니다.》

지면에 다 담을수 없는 인민의 목소리이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이 부름은 인민의 마음속에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새겨져 있다.

지난 한해만 돌이켜보아도 혹심한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악성비루스전염병위기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기울이신 멸사복무의 로고와 헌신을 인민은 눈물겹게 체험하였다.

인민의 마음속에 조선로동당은 고난과 시련속에서 자기들을 제일먼저 찾아주고 안아주는 고마운 운명의 품, 힘들 때에 제일 가까이 있어주는 이 세상 가

장 소중한 어머니품으로 더욱 뜨겁게 간직되어있다.

새해 정초 인민의 생산열의는 바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심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당을 따르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고 참다운 행복과 미래가 있다는것을 철석의 신념으로 간직한 인민의 마음의 분출이다.

무릇 새해를 가리켜 꿈이고 희망이며 소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주체110(2021)년의 새해가 부푸는 꿈과 희망, 소원과 기대만으로 환희로운것만 아니다.

걸어갈 앞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함께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가 더해진 새해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결론에서 오늘 우리 혁명의 외부적환경은 의연 준엄하고 침예하며 앞으로 우리의 혁명사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최악의 조건과 시련속에서 남들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이제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란 있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조국앞에는 의연 무수한 시련과 난관이 도전해오고있다.

그러나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받드는 전체 인민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힘이 있는 한 새로운 승리를 향한 조국의 미래는 낙관적이다.

본사기자

# 주체적힘을 강화하는것은 더 큰 승리의 담보

지난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제시되었다.

대회에서는 주체적힘 다시말하여 내적동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내부적힘을 전면적으로 정리 정돈하고 재편성하며 그에 토대하여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하면서 새로운 전진의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현존하는 외부적인 도전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격파할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이 지난 5년간 자체의 힘을 부단히 증대시키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들은 적대세력들의 장기간의 극악한 제재봉쇄와 혹심한 재난속에서 자력으로 이루어낸것으로 하여 평온한 시기의 경제건설수자에 비할수 없는 몇십배의 강력한 분발력, 발전력의 결실로 된다. 이것은 인민들의 정신력과 열의, 창조적로동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국에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여왔다.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새 조국건설시기,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를 비롯한 년대들을 승리적으로 넘어올수 있는것은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도움보다도 당이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고 그

힘을 증대시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왔기때문이다.

최근 몇해어간에 진행된 자연재해복구사업이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나라의 전반적지역을 련이어 휩쓴 태풍과 큰물로 하여 도처에서 농경지와 살림집들이 파괴되었을 때 당은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총동원하였다.

지난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폭우로 하여 아직 물이 찌지 않은 은파군 대청리를 남먼저 찾으시여 피해정형을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그후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과 큰물에 의해 함경남북도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지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많은 수재민들이 한지에 나앉은 긴박한 정황이 조성되었을 때에는 피해지역을 최전선으로 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피해복구를 강력히 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수도의 당원들에게 터놓기로 결심하시고 태풍피해현장에서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에게》라는 공개서한을 보내시였다. 공개서한이 발표된 다음날 하루동안에만도 수도의 수십만 당원들이 피해복구전선에 탄원해나섰고 1만 2 000명의 최정예대로로 무어진 수도당원사단들이 피해복구현장에 급파되었다.

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은 비상히 양양된 기세로 불과 7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폐허나

다름없던 함경남북도의 피해지역들에 수백세대의 단층, 소층 살림집들을 일떠세웠다.

현실은 그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주체적힘을 증대시키면 기적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만연되어온 그릇된 사상관점과 무책임한 사업태도, 무능력, 구태의연한 사업방식부터 뿌리뽑고 자체의 힘을 충분히 응집시키는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전진을 구축하는 낡은 사업체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업방식과 장애물들을 단호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여야 하는것이다.

하여 당 제8차대회에서는 지난 시기의 과도적인 방식에서 탈피하고 도식주의를 극복하며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들을 시급히 바로잡아야만 앞으로 달성하여야 할 국가경제의 전망목표수행과 같은 사회주의건설이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복리를 가져다줄수 있다고 보았다.

불리한 객관적형세를 딛고 일어서는 힘, 주동성을 가지고 난국을 타개해나가는 실제적인 힘인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강화해나가는것, 바로 여기에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여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결실로 이어가는 길이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연 옥



# 철강재 생산으로 들끓는 황철

굴지의 철생산기지인 황해제철련합기업소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파업관철에서 큰걸음을 내디디고있다.

기업소에서는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으로부터 현존생산토대하에서 생산을 더 늘이기 위하여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과학기술을 앞세워나가고있다. 철생산의 선행공정을 담당한

산소분리기2직장에서는 대형산소분리기의 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하여 질 좋은 산소를 용광로직장에 보내주고있다. 용광로직장에서는 용해공정에서 원료와 연료의 특성에 맞

게 작업량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로조작을 기술적요구에 맞게 진행하는 한편 교대호상간 서로 도와주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그리고 쇠물의 질과 로가동률,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보다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혁신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직장에서는 용광로의 탈류제 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선철의 질을 보다 개선하였으며 제진계통을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로가동률을 훨씬 높였다.

강철직장에서도 초고전력전기로와 산소전로, 연속조괴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나가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기업소의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중간남비가열장치를 창안도입하였다.

현장에서 은을 내고있는 가열장치는 전기대신 수백kg의 미분탄을 가지고 짧은 시간동안에 남비의 온도를 높여 쇠물의 질을 보장할뿐아니라 생산성을 높

이게 하였다. 이와 함께 동력직장, 합금철 직장을 비롯한 보장부문을 맡은 직장들에서도 련대적혁신을 일으키면서 철강재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평양화력발전소의 로동계급이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이곳 로동계급은 인민경제의 동력인 전력생산에서 기업소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으로부터



발전설비들의 현대화를 중점목표로 정하고 이 사업에 힘을 넣는 한편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부문공정들사이의 련계를 조화롭게 맞추어 전력생산을 늘이고있다.

전력생산의 중요공정을 맡은 열생산1, 2직장에서는 열효률을 높이는 한편 합리적인 운전조작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타빈직장에서는 지난해 효율높은 타빈날개를 도입하여 전력증산에 이바지하였다.

열설비보수사업소에서는 이미 보이래대보수기일을 앞당긴데 기초하여 발전설비들에 대한 예방보수를 짜고들어 설비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자원화사업을 밀고나가 보수에 필요한 제관품들을 마련해가고있다.

뿐만아니라 기업소에서는 연재로 보이래보온

과 제진에 필요한 단열벽돌을 대량 생산해내고 있다.

단열벽돌은 열손실을 줄이고 발전효률을 높일 수 있는것으로 하여 화력발전소들에서 널리 리용하고있다.

타빈직장 직장장 리호철은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발전소로동계급의 기세는 매우 높다.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된다고 우리는 양양된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감으로써 전력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해간다.



백색연재를 리용한 단열벽돌생산



열설비에 대한 보수방안을 토의하는 일군들과 기술자들





# 새 무장력의 탄생

(1호에서 계속)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물론, 산림대와 독립군들까지도 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사면초가의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우리 유격대의 존재와 활동을 합법화할수 없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지 않고서는 대오도 확대할수 없었고 공개적인 군사활동도 할수 없었다.

부대는 조직했지만 합법화할수 없으므로 우리는 모두 뒤꼍방에 배겨있는 신세가 되었다. 세상에 나타나야 빛을 보겠는데 나타날수 없었다. 군복도 없이 모두 사복을 입고 남의 집 뒤꼍방에서 모젤이나 주무르며 이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항일을 하겠는가고 통탄만 하였다. 그것도 조선부락에나 숨어있을뿐 다른데는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밤에만 몇사람씩 비밀리에 나다니는 형편이었다.

초기에 우리가 유격대를 비밀유격대라고 부른 리유도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그때 일본군대들뿐아니라 구국군과 만주군패잔병까지도 피해다녀야 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조선의 일부 민족주의자들과 반동분자들도 경계하면서 다니었다. 합법적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공산당이라고 막 쏘고 행패질을 하는 판이어서 정말 문제거리였다. 연길, 화룡, 왕청, 훈춘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사는 집만 골라다니실수도 없었다. 본래 어렵게 살던 사람들인데 몇십명씩 무리를 지어가서 다 털어먹고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것이니 그것도 야단이였다.

유격대를 합법화하여 대낮에 다니면서 노래도 부르고 군중들로부터 환영도 받고 선전도 해야 일도 되고 싸울 맛도 나련만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였다.

우리는 모여앉기만 하면 유격대를 어떻게 합

법화하겠는가, 반일부대들과의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풀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제일 심각하게 논의된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의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는것이 옳은가그른가하는 문제였다. 구국군은 그 상층부가 자산계급출신들로 이루어져있고 지주, 자본가, 관료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군대인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들과 손을 잡는것은 계급적원칙의 포기이고 타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는 동무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그들은 구국군과 일시적으로 관계를 개선할수는 있어도 동맹관계를 맺을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적대적 행동에 대하여서는 실력으로 눌러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주장이였다. 우리는 구국군이 비록 여러가지 제한성은 있어도 투쟁목적과 처지의 공통성으로부터 항일전쟁에서 우리의 전략적인 동맹자로 될수 있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구국군과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은 물론, 그들과 련합전선까지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상과 리념이 다른 두 무장력의 련합전선에 대한 문제는 당시까지만 하여도 처음으로 제기된것이기때문에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반일부대들과의 련합전선을 실현하는것은 중국공산당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동만특위에서는 일찍부터 왕덕림부대에 주의를 돌리고 7~8명의 우수한 공산당원들을 파견하여 구국군과의 공작을 하게 하였다. 우리도 리광을 비롯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을 구국군부대들에 파견하였다.

나는 통신원들을 통하여 동산호부대에 파견된 리광이 구국군공작에 부심하고있는 정형을 여러번 보고받았다.

구국군의 행패가 심해지자 우리 동무들은 련합전선은 공상이니 우리도 이제는 맞불질을 해

서 희생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자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겨우 설복시켜놓았다. 구국군을 적으로 삼고 그들에게 1대1로 보복을 가한다는것은 반일이라는 대의와 도리에도 맞지 않고 청소한 우리 유격대를 자멸어로 이끌어갈수 있는 무분별한짓이기도 하였다.

간도는 물론, 만주전역의 공산주의자들과 유격대원들이 구국군때문에 고심하고있었다.

당시 각 현에 있는 유격대라고 해야 얼마 안되었다. 한개 현에 몇십명정도밖에 없었다. 그것마저도 구국군한테 잡히기만 하면 모조리 죽는 판이니 부대를 늘일 욕심이 있어도 도무지 늘일수가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나는 우리 유격대가 당분간 우사령부대에 들어가서 별동대로 활동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사령부대에 들어가면 구국군의 간판을 가지게 되니 피해를 입을 념려가 없고 무기도 좀 해결할수 있지 않겠는가, 영향만 잘 주면 그들을 공산주의화하여 안전한 동맹자로 만들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동무들의 토론에 붙이였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당조직의 본부가 있는 소사하 김정룡의 집에서 하루종일 회의를 하였다. 그 모임을 지금은 소사하회의라고 한다. 그 회의가 아주 격렬하였다. 구국군부대안에서 별동대로 활동하는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를 걸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목이 아프게 논쟁을 하였다. 애연가들은 물론, 담배를 피울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마라초를 쪼나들고 설새없이 연기를 뿜어대는 바람에 눈이 쓰리고 숨이 막혀서 혼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결국 별동대에 관한 나의 착상은 동무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구국군과의 담판을 위하여 우사령부대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책임자로 내가 선발되었다. 동무들이 나를 선출한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겠다고 자청해나섰다.

당시 우리한테는 군사외교를 해본 인물이 하

나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를 대표로 보내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었다. 대표는 선출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상대측이 접근이나 시키겠는지, 정작 담판을 하게 되면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내대고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지 않겠는지 그리고 수들리면 우리 대표를 사살하지나 않겠는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대표로는 이 모든 정황에 능숙히 대처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한다는것이 이구동성으로 강조되었다.

우리들가운데는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재가 없었다. 우사령과 마주앉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발해야겠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는 박훈, 김일룡, 호진민뿐이였다. 김일룡은 나이가 나보다 10여살이나 이상되는 사람이였지만 중국말을 잘 몰랐다. 그 나머지는 다 조아범처럼 학교를 갓 나온 18~20살내기들이였다.

나는 동무들한테 나를 보내줄것을 제기하였다.

동무들은 그 제의를 반대하였다. 성주동무는 대장인데 우사령이 공산당이라고 잡아제끼면 곤란하다, 그러니 진한장이나 조아범이나 호진민 같은 중국동무들가운데서 누구든지 외교에 능한 사람이 가는것이 좋겠다는것이였다.

나는 동무들에게 우사령이 내가 가면 무엇때문에 죽이겠는가고 물었다. 동무들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들어갔다 《쪼리빵즈》 하고 죽이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데 너라고 못 죽일게 뭐가, 왕청 관부대사건때문에 요즈음은 구국군이 조선청년들이라면 더 눈을 밝힌다는데 너는 가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관부대사건이란 왕청에 있는 리광동무의 비밀유격대가 관부대란 반일부대의 무장을 해제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하여 유격대와 구국군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유격대의 활동에 더 어려운 국면이 조성되게 되었다. 왕청에서 온 통신원은 자기네 고장에서 관부대사건이 있는 다음 그 보복으로 여러명의 유격대원들이 구국군에 붙잡혀 총살당하였다고 하였다. 김책동무가 북만에서 산림대에 붙잡혀 죽을뻔한것도 이와 비슷한 시기였다.

(다음호에 계속)



#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 개선된 녀성들의 일터

주체51(1962)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양제사공장(당시)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공장의 생산실태를 료해하시면서 어느 한 직장에 들어서려고 하실 때였다.

공장의 한 일군이 그이앞에 나서며 이 직장은 배기장치를 수리하는중이므로 들어가실수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면 다 들어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직장안으로 들어서시였다.

직장안은 김이 뽀얗게 서려있었다.

생산현장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이 공장에 와보고 로동조건을 개선해주느라고 했지만 그동안 전쟁을 겪었고 전후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하다보니 제사공들이 아직도 어려운 형편에서 일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녀성 로동자들에게 로동조건을 잘 보장해주자고, 자신의 생각은 금년중으로 공장을 새로 번듯하게 건설해주자는것이라고, 래일부터라도 당장 건설에 착수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생산현장에서 나오신 그길로 새로 지을 공장터전도 잡아주시고 주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시며 협의회까지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협의회에서 새로

짓는 공장은 김 한점 서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고, 건물을 높이 짓고 배기장치를 잘해서 김을 쭉쭉 빨아내게 해야 하며 목욕탕, 식당, 탁아소, 유치원도 잘 지어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사랑의 조치에 의해 평양제사공장은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녀성들의 일터로 전변되였다.

## 쌍둥이자매로동자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 기계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에 있는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 일군들은 20여년전에 그이께서 만나주셨던 쌍둥이자매가 지금도 공장에서 일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며 그 쌍둥이자매가 지금까지 일하고있는가고, 어서 그들을 만나보자고 하시였다.

공장일군들은 물론 수행한 일군들도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수십년전 생산현장에서 만나보시였던 그들을 아직까지도 잊지 않고계시다니!)

그날은 주체78(1989)년 11월 어느날이였다.

그때 공장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있는 쌍둥이자매의 일습씨를 이윽도록 지켜보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녀려해주시며 오래도록 현장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였다.

그때로부터 20여년세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으신 곳, 만나주신 사람들은 그얼마이랴. 하지만 그이께서는 쌍둥이자매로동자들을 잊지 않고계신것이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만 있는데 어느새 쌍둥이자매가 《장군님!》 하고 부르며 달려왔다.

반갑게 맞아주신 그이께서는 그들의 지나온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친어머니심정으로 물으시였다.

쌍둥이자매는 어려움도 잊고 그이께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수십년간 공장에서 일하고있다는것과 그 과정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시집을 가서 자식들도 2명씩 낳았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들의 대답을 다 듣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녀성의 몸으로 수고가 많다고, 참으로 훌륭한 소행이라고 하시면서 20여년전에 자신께서는 연약한 그들의 건강을 걱정하였다고,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 대회장에서 지어주신 아기이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의 폐회를 선언하시였을 때였다.

비행사들은 영광의 이 하루가 다 지나간 아쉬움을 안고 열광의 환호를 울리였다.

# 인민을 위한 걱정

그런데 그이께서는 주석단을 내리지 않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시였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비행사들은 긴장한 눈빛으로 그이를 우러렸다.

한동안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장대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얼마전에 녀성비행부대에 갔다가 갓 출생한 녀성비행사동무의 아들이름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어주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였다.

순간 대회참가자들도 그러했지만 특히 부부비행사가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첫 공개연설을 하신 때로부터 9년이 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4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만난 시련을 헤쳐온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길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온 한해 룡라인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창전거리, 평양산원유선중앙연구소, 평양양말공장, 평양아동백화점 등을 찾으시였다.

자신의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시며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마련해가시는 그이 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곳이라면 로고를 마다하지 않으시였다.

평양가방공장, 김정숙평양방

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류경김치공장,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강서약수공장, 류원신발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찾으신 경공업공장들만 해도 수십개나 된다.

경공업부문만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과학농사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어느 한 농장을 여러차례나 찾으시였고 인민들에게 수산물을 풍족하게 먹이시려 수산사업소들도 련이어 현지도하시였다.

어느 한 단위에 가시여서는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을 맛보시였고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서는 선창에 넘쳐나는 물고기들을 보시고 《바다 만풍가》의 선물을 떠올리신 그이 이시였다.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이께 있어서 크고작은 공장, 멀고가까운 곳, 좋거나쁜 길이 따로 없었다.

에서 이름을 리충도라고 지으면 어떻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자 우렁찬 박수소리가 대회장을 진감시켰다.

그이께서는 걱정에 흐느끼는 녀성비행사에게 물으시였다.

《충도라는 이름이 마음에 듭니까?》

《이름이 좋습니다. 앞으로 아들을 훌륭한 비행사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는 그이의 품에 와락 안겼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 존 경 받 는 녀 성 들

지방의 크지 않은 원산구두 공장만도 여러차례나 찾으시었고 조선서해기슭의 한끝 신도군에까지 가신 일도 있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고생도 달게 여기시는 그의 헌신적인 령도에 의해 지난해에는 재해를 입은 지역들에 새 거리, 새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피해지역 인민들의 살림집 건설을 위해 피해복구전투라는 거창한 사업을 펼친 그자체만으로도 세계에 주는 파장은 실로 크다.

그것도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원래 살던 집보다 훨씬 크고 든든한 새 집들을 지어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는 연단에서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고 하시며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가자고 하시였다.

지난해 당의 75년사를 총화하는 자리에서도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것은 자신과 당의 제일사명이요 확고부동한 의지이라고 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지나온 9년은 그의 인민을 위한 사랑과 정의 령정, 멸사복무의 령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본사기자



수도건설위원회 국장 량정임

조국에는 가사보다 국사를 중히 여기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성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중에는 수도건설위원회 국장 량정임과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공훈과학자 유선옥, 송산궤도전차사업소 운전사 장영희도 있다.

## 건설자들이 기다리는 여성일군

수도건설위원회 국장 량정임은 건설자들이 따르는 여성일군이다.

그는 지난 시기 만수대거리개건공사와 창전거리건설,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한 건설장들에서 실력을 발휘하였다.

높은 실력과 기발한 착상은 그의 첫째가는 장점이다. 그는 만수대거리개건공사때부터 오늘까지 중요대상건설과 개건 보수공사의 기술준비와 공정계

획작성은 물론 공사조직과 지휘를 맡아 수행하고있다.

그 과정에 그는 기발한 착상들을 내놓아 건설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곤 하였다.

창전거리건설때에는 많은 로력과 강재를 절약하면서도 기일을 훨씬 앞당길수 있는 지하철도의 층막구조에 대한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창안도입하였고 려명거리건설때에는 새로운 통방식휘틀조립과 전면콩크리트치기로 18시간에 한개 층의 골조를 조립할수 있게 하였다.

그는 건설자들과 일도 하고 여성특유의 살뜰한 정으로 그들의 생활도 돌봐주곤 한다. 공사기일보장이 어렵게 되었을 때마다 건설자들을 불러일으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곤 한 그였다. 건설자들은 그를 가리켜 《매력적인 여성국장》, 《기다려지는 일군》이라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 과학자의 량심을 지니고

최근 조국의 농장들과 양묘장들에서는 록색유기미량원소복합비료인 천연생물활성제를 리용하여 알곡과 과일, 묘목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식물생장에 필요한 수백가지의 성분들이 들어있는 천연생물활성제는 식물의 빛합성능력과 뿌리활성을 강화시켜준다.

그 개발자는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공훈과학자 유선옥이다.

그는 이 발명으로 세계지적소유권기구로부터 발명가메달과

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보다 앞서 공해와 잔류독성이 전혀 없는 식물성농약도 개발하였다.

이 농약을 개발할 당시 농촌들에서는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심하게 받고있었다. 당시 숙천농업단과대학 교원으로 일하던 그는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할 연구과제로 정하였다.

그는 교육사업과 연구를 동시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실장 유선옥

에 진행되는 속에서도 연구를 중단함이 없이 내밀어 끝내 식물성농약 《명록1》연구에서 성공하였다.

이 농약은 80여종의 병해충을 구제하는것으로 하여 농업생산의 안전성을 담보해주었다.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보다 기능이 첨부된 《명록3》을 내놓았다.

뿐만아니라 집집승강장활성제를 연구하여 축산업발전에도 기

여하였다. 나라의 농축산물을 늘이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될수 있는 연구를 하는것이 그의 과학적신조이고 량심이다.

66살의 년로한 몸이지만 그는 새로운 농약개발에 달라붙고있다.

오늘도 그는 숲에서, 벌에서, 실험실에서 탐구의 낮과 밤을 보내고있다.

## 첫 녀성궤도전차운전사

송산궤도전차사업소에는 첫 녀성궤도전차운전사 장영희녀성이 있다.

보기에도 체소한 녀성인 그는 지난 23년간 궤도전차를 쉬임없이 몰고 달려왔으며 해마다 연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그가 궤도전차운전사가 된데는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전쟁로병이며 인민군군관이었던 아버지는 딸에게 자주 전화의 나날에 태여났던 녀성비행사들에 대하여, 평화시기에 배출된 영웅방직공, 영웅제사공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아버지의 말에서 그는 앞으로 커서 나라와 인민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후 그는 궤도전차운전사가 될것을 결심하였으며 자기가 내짚은 걸음을 한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운전기술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했고 전차로선들에 대한 파악도 구체적으로 해나갔다. 그리고 전차의 수리를 자체로 하기 위해 애썼다.

사업소의 수리공들은 그가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궤도전차 점검과 수리는 자기들이 하겠으니 어서 퇴근하라고 떠밀곤 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때마다 웃으며 운전사라면 응당 점검과 수리도 제손으로 해야 한다며 팔을 걸고 나섰다.

가정일보다 직장일에 더 파묻혀있었던것으로 하여 그는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감이 앞섰다. 그러나 수십년간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동요를 몰랐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무사고주행의 별들은 늘어만 갔다.

오늘도 그는 변함없이 두줄기 궤도에 고결한 삶을 수놓아가고있다.



송산궤도전차사업소 운전사 장영희

그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 어제날의 처녀교환수

한 인간의 인생행로에서 57년,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을 한 직종에서 변함없이 일해오고 있는 한 녀인이 있다. 그는 평양시체신관리국 대동강구역체신소에서 소장사업을 하고있는 첫 교환수영웅 김성화녀성이다.

《우리 어머니몸에는 20여군데나 되는 상처자리가 있다.》고 김성화녀성의 딸 딸 한명신은 말하였다.  
주체56(1967)년 8월 평안남도 성천군에 대홍수가 들이닥쳤다. 비류강이 범람하여 군안의 많

은 살림집들과 공장, 기업소, 농경지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것이 계속 확대되었다. 그중에서도 대양리의 피해는 더욱 혹심하였다. 문제는 대양리와와 통신이 두절되어 피해상황을 제때에 정확히 평양에 알릴수가 없는 것이었다. 시급히 통신을 회복할데 대한 임무가 당시 성천군체신소의 처녀교환수였던 21살의 김성화녀성과 몇명의 성원들에게 맡겨졌다. 대양리에 도착한 그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전주대와 통신선들이 물속에 잠기었고 사품치는 물결은 금시라도 집어삼킬듯 격랑을 일으키고있었다.  
현실앞에서 모두가 주저할 때 김성화녀성이 물속에 뛰어들었다. 그때를 회상하며 김성화녀성은 《대양리인민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순간도 지체할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사품치듯 흐르는 물에 몸을 잠그고 끝을 잃은 실통구리와도 같이 뒤엎긴 통신선들가운데서 목적인 회선을 찾아내는데는 사실 술술에서 바늘찾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끊어진 통신선들이 몸의 여러 부위를 찢러 피가 흘렀고 여러 시간동안 흠탕물속에서 모대기다니니 힘이 빠져 세찬 물결에 떠내려가기도 하였다. 허나 그는 필사의 노력으로 마침내 회선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러나 끊어진 회선을 연결하려고보니 1m가량이 모자랐다.  
성천군체신소 소장 윤성호는 《물속에 몸이 잠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다. 하지만 김성화녀성은 서슴없이 통신선의 량쪽끝을 감아쥐었다.》라고 말하였다.  
김성화녀성의 희생적인 행

동으로 하여 국가적구조대책이 취해졌고 시시각각 사경에 접근하던 대양리사람들이 구원될수 있었다.  
김성화녀성이 발휘한 소행은 그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력영웅이라는 금메달로 빛났다.  
《육체가 늙어 마음이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늙어 육체가 늙는다.》  
이 말은 김성화소장이 자주 외우곤 하는 소리이다.  
올해 그는 75살이다.  
최근년간에만도 그는 체신관련 과학기술자료들을 열람할수 있는 과학기술보급실을 새롭게 꾸리고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망을 구축한것을 비롯하여 체신소안의 전반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한층 개선하여 체신봉사활동에서 진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김성화소장은 《나라에서는 산골군의 처녀교환수였던 나를 영웅으로 내세워주었다.



로력영웅 김성화

인민을 위한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하고싶다.》라고 말하였다.  
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한 모습으로 살고있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처녀교환수영웅이라고 부른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우편통신원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주름살은 나이가 들어간다는것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다. 때문에 아름다움과 젊음의 퇴색은 얼굴에 생기는 주름살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피부탄력성저하의 근본원인은 콜라겐부족에 있다.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과 부드러움, 견고성과 피부의 신진대사활성화 및 보습, 세포결합 및 접착기능을 수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피부를 습윤하고 부드럽게도 해준다.  
봉화산화장품생산사업소에서 개발한 《태성》콜라겐살결물과 물크림은 최신특허기술을 리용하여 국내의 천연원료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피부흡수율이 높게 저분자화하여 넣은 기초화장품이다.  
이 제품에는 천연미백제와 강력한 항염증제, 항산화제들이 풍부히 들어있어 피부의 미백기능, 로페물 및 번두라지제거에서 놀라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살결물과 물크림을 함께 사용하면 잔주름들이 사라지면서 피부탄력이 향상되는것을 느낄수 있으며 매끈하고 아름다운 본래의 피부를 되찾게 되는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피

## 《태성》콜라겐제품들

부로화를 막을수 있다. 《태성》콜라겐화장품은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태성》콜라겐화장품



봉화산제약소에서 사람들에게 건강과 젊음을 주는 《태성》콜라겐건강식품들을 개발생산하고 있다. 건강식품들의 주성분은 콜라겐이다.

《태성》콜라겐건강식품



콜라겐은 수많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일종이다. 사람은 25살이후부터 콜라겐생성능력이 점차 줄어들게 되며 이로 하여 관절염과 동맥경화, 피부의 손상 등이 초래된다.  
천연동물성원료로부터 새로운 생물기술을 리용하여 제조한 저분자화된 콜라겐펩티드와 뼈 및 피부의 대사에 필요한 여러가지 성분들이 조화롭게 포함된 《태성》콜라겐건강식품들은 몸안에서 콜라겐의 생합성을 촉진하며 몸의 산화를 막아준다.  
콜라겐칼시움교감은 청소년들의 키크기를 촉진하며 뼈성김증, 무릎관절아픔, 허리아픔과 같이 뼈기능이 낮아졌거나 뼈가 손상되었을 때 뚜렷한 회복효과를 나타낸다.  
미용콜라겐영양액은 얼굴과 같은 제한된 부위가 아니라 전반적인 피부의 로화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다.  
《태성》콜라겐건강식품들은 누구에게나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져다줄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 첨단기술개발로 권위 획득



《압록강》상표를 단 생체식별기술제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며 많은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고있다.

지문, 얼굴, 음성, 장문, 정맥, 홍채 등 각이한 생체식별기술을 리용한 다양한 제품들은 그 안전성과 휴대편리성, 정확성, 실용성, 품질에 있어 높은 수준이다.

제품들은 압록강기술개발회사에서 개발생산되고있다.

수백명의 두뇌진과 완벽한 제품개발 및 생산능력을 가지고있는 회사는 생체식별기술을 비롯한 선진적인 인공지능기술개발에서 근 40년의 역사를 가진 정보기술집단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잘 알려져있다.

주체71(1982)년에 창립된 회사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생체식별기술 등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끊임없이 실천해왔다.

주체77(1988)년에 큰 과문을 일으켰던 광전자식지문인식기개발로 첫걸음을 뗀 회사는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이라고 볼수 있는 지문출입관리기를 개발하여 국제시장에 내놓았으며 제품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스위스제네바국제발명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여받았다.

주체85(1996)년 9월 100여개 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서 진행된 안전기술기재전시회에서 회사의 지문열쇠와 지문입구장치들은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핵심알고리즘연구를 부단히 심화시켜 회사는 주체89(2000)년부터 얼굴식별기술에 의한 얼굴식별열쇠, 얼굴인식출입관리기, 얼굴IC카드식별기 등 정확한 식별률을 가진 응용제품들을 개발제작하였다. 2010년대에는 장지문, 홍채, 정맥, 음성식별기술에 의한 각종 응용제품들을 련이어 완성하여 세계첨단기술개발경쟁에서 자기의 지위를 뚜렷이 하였다.

지금 회사의 응용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으로 매달 수만대를 넘어서고있다.

회사는 인공지능기술분야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첨단기술의 개발자, 기술이전자의 주도적립장에 확고히 서있다.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세계 20여개의 나라에 50여개의 개발 및 판매거점들을 두고있는 회사는 유능한 IT회사들과의 공동연구 및 개발, 기술합작, 판매를 실현하고있다.

외적인 도전과 장애가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해외에서 수십년간 수많은 도전들을 극복하면서 단독기업으로서 자기 발전과 지위를 고수해나간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제인가 아시아의 한 기업가는 회사에 대해 《압록강기술개발회사의 중점을 파보게 되면 회사는 실지 자기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있다. 그들은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다.》고 평가한바 있다.

그의 말을 음미해보면 회사의 일관한 경영원칙을 들여다보게 한다. 회사는 인재중시와 신용제일주의를 틀어쥐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존엄을 지켜왔다.

한철호사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해외에서의 기술개발은 나라들사이의 치열한 기술경쟁, 두뇌경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만큼 이 경쟁마당에 가해지는 도전과 장벽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조선사람이라는 강한 자존심은 우리모두에게 그 무수한 장벽들을 넘을수 있는 야심만만한 배짱과 지혜를 주었으며 회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수십년간의 풍부한 대외활동경험과 첨단기술을 소유한 회사는 오늘 발전적견지에서 무역의 다각화를 지향하고있다.

회사는 투자령역을 보다 넓혀나가고있다.

기술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첨단기술제품종



사장 한철호

자들을 적극 확보하고 고성능, 고품질, 저가격의 경쟁력있는 첨단제품들을 개발하는 한편 여러 분야의 부동산투자와 경제, 문화교류 등 업종을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평등과 호혜, 호상신뢰와 공동리익의 원칙에서 그 어떤 대방들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것이 회사의 변함없는 자세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늘어나는 산림면적

조국에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특히 주체104(2015)년부터 주체113(2024)년까지를 산림복구전투기간으로 정한 조국에서는 산간오지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모든 산들에 나무를 심어 벌거벗은 땅이 없게 하

려고 계획하고있다. 이미 1단계사업이 성과적으로 결속되

고 주체107(2018)년부터 최종단계인 2단계전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이 과정에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는 많은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우선 전국도처에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양묘장들이 일떠서 산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를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강원도와 함경북도만 놓고보더라도 수십정보의 면적에 나무모온실, 야외재배장, 원형삼



전군중적으로 나무심기운동을 벌린다.

평안북도양묘장



목장,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장을 비롯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양묘장들이 일떠서 각각 연간 2 000여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채종양묘국 국장 김송정은 《주체106(2017)년부터 주체109(2020)년 사이에 7개 도들에 큰 규모의 양묘장이 일떠서고 평안남도 문덕군과 평안북도 태천군 등 많은 시, 군들에 모체양묘장과 나무모온실이 건설되었다. 현재 건설중인 양묘장들이 완공되면 해마다 150여개 수종에 수십억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이 도입되어 산림부문의 물질기술

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개선되었다. 산림복구전투기간에 주요 조림수종의 사철나무심기기술공정확립, 섬황철나무의 대량번식기술, 밤나무종자썩짐모생산기술을 비롯하여 연구도입된 과학연구자료만 해도 130여 건이나 된다. 산림복구전투가 고조되는 속에 수종이 좋으면서도 경제적가치가 높은 산열매나무들을 대대적으로 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자강도에서는 지난해에 15만 5천여그루의 단나무모를 생산하여 60여정보의 단나무림을 새로 조성하였으며 량강도에서는 70여정보의 면적에 비타민 나무를 심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밤나

무, 잣나무, 머루, 다래 등 산열매나무와 유용나무심기사업이 계획성있게 진행되고있다.

산불과 병해충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지금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는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되고있으며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에 이바지한 많은 단위들이 사회주의 애국림칭호를 수여받았다.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김성준은 《산림복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100여만정보의 산림이 새로 조성되었다.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모든 산들이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훈성림





# 인민의사, 그 부름속에



황신오

평양의학대학병원 신경내과에는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신경계통질병들을 치료하는 유능한 의료일군이 있다.

그는 신경내과 과장 황신오이다.

그는 사리원고등의학전문학교(당시)와 평양의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총명하고 탐구정신이 높은것으로 하여 교육자들

속에서 전도가 촉망되는 의학자후비로 지목되었었다.

졸업후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새로 생긴 신경내과의 의사로 배치받은 그는 의술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환자치료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속에서도 그는 늘 선진적인 치료방법을 립상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고 시간을 아껴가며 자신의 실무적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경계통질병의 각이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 그가 찾은 교훈이 있다.

그것은 치료에서의 만성화였다. 즉 의사에게는 치료가 반복적인 일이지만 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중대사라는 것이었다.

늘 이것을 명심한 그는 여러

가지 신경계통질병을 치료하는데서 나서는 의학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색과 탐구를 기울이였으며 새로운 치료방법들로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그가 내놓은 논문 《의식장애의 립상적연구》는 누구든지 즉석에서 간단하게 의식장애의 경중을 평가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환자들속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그는 침치료방법으로 주기성사지마비때문에 생활상고충을 겪고있던 환자들과 장기간의 치료에서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던 신경계통질병환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되찾아주었다.

그의 치료에서 특징적인것은 진단이 정확하고 치료기일이 짧으며 치료효과가 높은것

이다.

의사라면 마땅히 환자에게 사랑과 정을 주어야 한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래야 환자가 의사를 믿게 되며 신심을 가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다는것이다.

그는 자기의 옷차림과 환자와의 대화 등 사소한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있으며 과의 의사들과 간호원들에게도 이것을 강조하곤 한다.

근 50년간을 근무해오는 과정에 그는 《조선대백과사전》, 《조선말대사전》, 《의학대사전》을 비롯한 많은 도서와 교과서집필에 참가하였고 수십개의 발명증서를 받았으며 의학잡지들에 76건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를 비롯한 국제의학토론회들에도 참가하였다.

일흔을 넘긴 나이이지만 지난해에도 도서 《신경면

역질병》을 집필하였다.

주체101(2012)년에 인민의사의 명예칭호를 받은 그는 신경내과분야에서 실력이 높고 권위있는 의학자들중의 한사람으로 인정되고있다.

지나온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자리에서 그는 《나는 일본에서 17년을, 조국에서 58년을 살았다. 그 기간 두 보건의제도에 대한 체험을 하였다. 그것이 나를 오늘의 단상에 올

라서게 한 바탕으로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민의사라고 존경담아 부르고있다.

황신오는 그 부름속에는 자기의 본분을 다해갈것을 바라는 사람들의 당부가 담겨져있다고 오늘도 환자치료에 정성을 다해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생일상을 받아안은 황신오  
주체105(2016)년 촬영



## 3월의 절기와 민속

3월은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시기이다.

3월의 절기로는 경칩과 춘분이 있다. 경칩은 대체로 양력으로 3월 5일이나 6일경에 들고 춘분은 양력으로 3월 21일경에 든다.

경칩은 땅속에서 겨울을 나던 벌레들이 얼음이 녹고 우뢰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어 꿈틀거리는 때라는 뜻이다.

춘분은 겨울기운이 완전히 가셔지고 봄이 되는 절기라는 뜻인데 이때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거의 같아진다. 이 시기에는 센바람이 자주 불지만 날씨가 온화해지고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린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경칩, 춘분시기가 오면 겨울난 흔적을 말끔히 가시기 위하여 울바자와 담장을 다시 손질하였으며 집앞의 물도랑도 정리하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였다.

이와 함께 봄갈이도 하고 감자와 참깨, 봄

보리, 수박과 오이 같은 농작물들과 봉선화를 비롯하여 꽃모, 담배모, 나무모도 심으며 한해농사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들에 파릇파릇 돌아나는 나물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먹으며 봄의 향취를 느끼었다.

대표적인 나물로 냉이와 달래를 들수 있다.

냉이로 국을 끓여먹으면 밥맛도 좋아지고

기력도 왕성해진다고 하면서 식생활에 많이 이용하였다. 달래는 식용뿐아니라 약재로도 널리 쓰이였다.

우리 선조들은 경칩, 춘분시기에 돌아나는 여러가지 약초들을 캐어 건사해두기도 하였으며 농사일의 흥을 돋우고 한해농사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농악놀이도 진행하였다.

\* \* \*



# 보 금 자 리



얼마전 나는 텔레비전에서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에서 안착된 생활을 하는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인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자연재해를 언제 당했던가 싶게 근심과 걱정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생각이 많아졌다.

집은 인간의 안식처이고 한 가정의 요람이며 생활과 웃음이 꽃피어나는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금자리가 없으면 가정도 기쁨도 없으며 동지없는 날새와 같이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고만다.

그래서 예로부터 《설움중의 가장 큰 설움은 집없는 설움》이라고 했고 《어려서는 어머니가 집이고 커서는 집이 어머니》라는 말도 생겨났다.

과학기술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오늘날에 와서도 제보금자리를 가지지 못했거나 잃은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세계의 곳곳에서 울려나오고있다.

특히 재앙과 재난의 해로 불리운 지난해에는 지구상의 여기저기서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사람들의 슬픈 모습이 텔레비존으로 방영되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현실이 조국땅에 펼쳐졌다.

뜻밖에 쏟아져내린 폭우와 강풍으로 개성시,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여러 지역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무너지고 논들이 물에 잠겼지만 피해지역들마다에는 얼마 안 있어 피해흔적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것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고있는 조국에서는 이전에 살던 집보다 더 좋고 든든한 집을 지어준것은 물론 평범한 농장원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었다.

제일먼저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가 재난의 흔적을 말끔히 가신데 이어 개성시와 신계군, 평산군, 장풍군, 재령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와 황해남도의 피해지역들에서 새집들이경사가 펼쳐졌다.

다음엔 황해북도 은파군 대

청리에서 새집들이경사가 났고 산악협곡에 위치한 검덕지구에 2 300여세대의 살림집도 새로 일떠섰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자연재해지역에 일떠선 살림집은 2만여세대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은 조국에서만 볼수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실례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행복에 겨워 웃고 노래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록 낮과 밤의 대조처럼 뚜렷한 두 제도에서 산 나의 생각은 깊어만 졌다.

30여년전 내가 살던 남조선 사회에서는 집값이 너무도 비싸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 집을 마련하는것은 평생소원으로 되고있었다.

그래서 돈없는 사람들은 세방살이를 하거나 창고 같은데서 살고있었다.

수십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출판보도물에는 집없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있는것이 매일 같이 보도되고있다.

하기에 나는 온 세상에 대고 소리높이 말하고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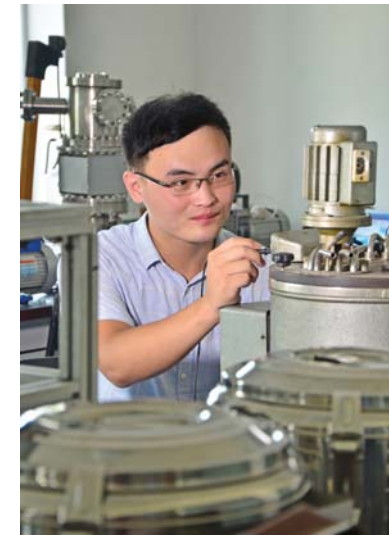
사회주의 우리 조국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넘치고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제일 크고 따스한 집이라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교수 박사 정규진

# 과학환상속에 사는 청년

사람들은 누구나 래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꿈꾼다.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생 허원(23살)은 언제나 래일을 그리며 환상속에 사는 청년이다. 그의 꿈은 하늘의 별을 따는것이였다.



물리실험을 하고있는 허원

어려서부터 과학자의 꿈을 안고있는 그는 물리학분야의 책이라면 덮어놓고 읽어보았다. 같은 또래의 많은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소설책이나 력사책을 읽곤 하였지만 그는 과학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더 정신을 집중하곤

하였다.

12살 나던 때 별을 남달리 좋아하던 그는 《천문학상식》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보면 볼수록 우주는 수수께끼로 짝 차있었다. 우주의 세계를 파헤치고싶고 하늘의 별을 따서 그것을 동무들에게 보여주고싶은 어린 소년의 천진한 호기심과 끝없이 부푼 꿈은 그를 과학환상문학창작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소설창작에 들어갔다. 저 멀리 우주에로, 검은 구멍이며 큰 새별, 적색거성으로, 수수께끼의 우주인들이 살고있다는 《푸른 행성》으로 환상의 나래를 펴갔다. 창작한 원고의 첫 독자는 담임선생님과 학급의 다정한 동무들이였다. 그의 글을 읽으며 선생님과 동무들은 그와 함께 별의 세계에 대해 토론하였고 좋은 의견을 주곤 하였다.

고심어린 노력과 선생님, 동무들의 방조속에 그는 마침내 처녀작으로서 과학환상중편소설을 창작하게 되었다.

소설은 독자들이 애독하는 소설로 되었다.

소년의 꿈은 커만 갔다.

자기의 희망대로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 입학한 그는 계산물리학을 전공하는 여가시

간에도 사람들에게 과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는 새로운 과학환상장편소설을 쓸 결심을 하고 창작도 하였다. 대학생으로서 공부만 하자고 해도 아깝지만 그는 공부와 소설창작을 다같이 밀고나갔다.

학업에서의 우수한 성적과 함께 그는 3년만에 또다시 과학환상장편소설을 내놓았다.

그의 환상소설은 문학과 물리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환상의 세계에서 사는 그의 여가시간은 흥미진진하게 흐르고있다. 사진학을 연구하는가 하면 빙상관에 가서는 언제 배우고 편마하였는지 상당히 높은 휘거기술을 발휘하고있다. 집에서 금붕어, 신선어를 비롯한形形色색의 물고기들도 기르고 있어 금붕어전문가라는 별호를 가지고있다.

그는 동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환상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나의 환상이 땅위에 현실로 꽃피울 결심이다. 또 그 길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앞당겨오는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조선속담**  
(파렴치성)

- 결집잔치에 낮을 낸다  
제 물건을 쓰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지고 자기의 낮을 내는것을 이르는 말.

- 남의 떡함지에 넘어진다  
남의 떡을 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일부러 떡함지에 넘어져서 떡을 집어먹는다는 뜻으로 련치없이 남의것을 가지거나 얻어먹으려고 비위를 부리는것을 편찬조로 이르는 말.

- 낮가죽이 발바닥만큼 두껍다  
부끄러움을 모르도록 뻔뻔스럽고 련치가 없음을 욕으로 이르는 말.

\* \* \*



#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9돐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들이 뜻깊은 경축모임들을 가지었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심양주재 총령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작품, 단동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부회장가족,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협회가 각각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행사장들에는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들이 흐르고있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편지 채택모임이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 성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특음편집물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이 차넘치게 하여》와 록화편집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를 청취 및 시청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조국의 번영과 통일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몸바쳐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한편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성원들은 노래 《2월은 봄입니다》를 부르며 뜻깊은 광명성절을 경축하였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도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씨야고통련청사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로씨야고통련 성원들과 동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로씨야협회 성원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김철성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의 축하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발전봉부화하시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새 세계를 바라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신 위대한 스승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그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적대세력들의 온갖 침략위협과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발전시켜오신 고이의 업적은 영원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게 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오늘 사회주의조선이 자기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고있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이어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체 당원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석성 로씨야고통련 1부위원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석성 로씨야고통련 1부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진행정형과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상세히 언급하였다.

재로동포예술인들의 공연도 있었다.

공연무대에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무용 《부채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본사기자

# 민족교육의 명맥을 지켜

자랑스러운 역사를 빛내이며

일본의 고베지역은 역사적인 4.24교육투쟁의 발원지이며 총련 고베조선고급학교는 그 피어린 투쟁의 산아로서 7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있다.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고상한 정신세계와 례절바른 도덕품성 그리고 교정에 차넘치는 혈육의 정과 굳센 단결력은 이 학교의 첫째가는 자랑이다.

그런데로부터 이 학교졸업생들속에는 공화국의 교수, 박사, 인민체육인, 인민예술가들이 적지 않다.

이 지역의 1세, 2세대동포들은 늘 학교에 찾아와 민족교육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렬사들의 투쟁이야기를 들려주곤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은 피로써 쟁취한 애국투쟁의 고귀한 전취물들을 영원히 지키고 빛내여갈 의지를 가다듬곤 한다.

이 학교의 교직원들은 학생 한명한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참된 조선사람으로, 훌륭한 민족인재로 키우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고있다.

## 스스로 맡은 일

도쿄지역에는 민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스스로 맡아안고 쉬임없이 진행하고있는 동포노래소조원들이 있다.

《우리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와 웃음넘치는 동포사회를 위하여!》, 이것이 노래소조원들의 활동목적이다. 소조를 결성한 후 그들이 처음으로 익히었고 오늘도 즐겨부르는 노래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와 《아버지의 축복》이다.

소조원들은 지난 20여년간 400회이상의 공연무대를 펼치였고 그 과정에 마련된 자금을 고스란히 일본각지의 조선학교들에 지원하였다.

동포사회의 사랑을 받는 민족예술단체들중의 하나인 민족악기중주단(민악)도 조선학교들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을 적극 벌리고있다.

얼마전 그들은 총련 후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저대독주 《만경대의 봄》과 소해금독주 《봄맞이》, 민족기악중주 《환희》 등 그들이 무대에 올린 작품들은 동포들과 학생들의 질찬을 받았다. 이들뿐만이 아닌 일본각지의 수많은 동포들이 스스로 일감을 맡아안고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고있다.

## 아름다운 화원에 넘치는 민족성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학생소년들이 재능의 꽃을 피우고있다.

총련 규슈조선중고급학교 가야금소조는 제일조선학생중앙예술경연대회에서 10년째 연속 우수작품상을 수여받는 자랑을 가지고있다. 맑은 음색과 짜인 안삼블로 노래의 사상을 훌륭히 형상하고 곡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이들의 연주는 동포들의 질찬을 받곤 한다.

총련 도쿄조선제1초중급학교 민족관현악소조가 올리는 아름다운 선율도 언제나 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소조원들도 경연대회에서 6년동안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다. 지난해 가을에 그들이 창작발표한 민족기악중주 《저고리는 나의 노래》는 동포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총련 나가노조선초중급학교 무용소조의 녀학생들은 민족의 넋이 어려있는 조선치마저고리를 주제로 한 작품을 창작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책동속에서도 굴함없이 민족의 넋을 지켜가는 새 세대들의 모습을 감명깊이 보여준것으로 하여 이 무용작품은 동포들의 심중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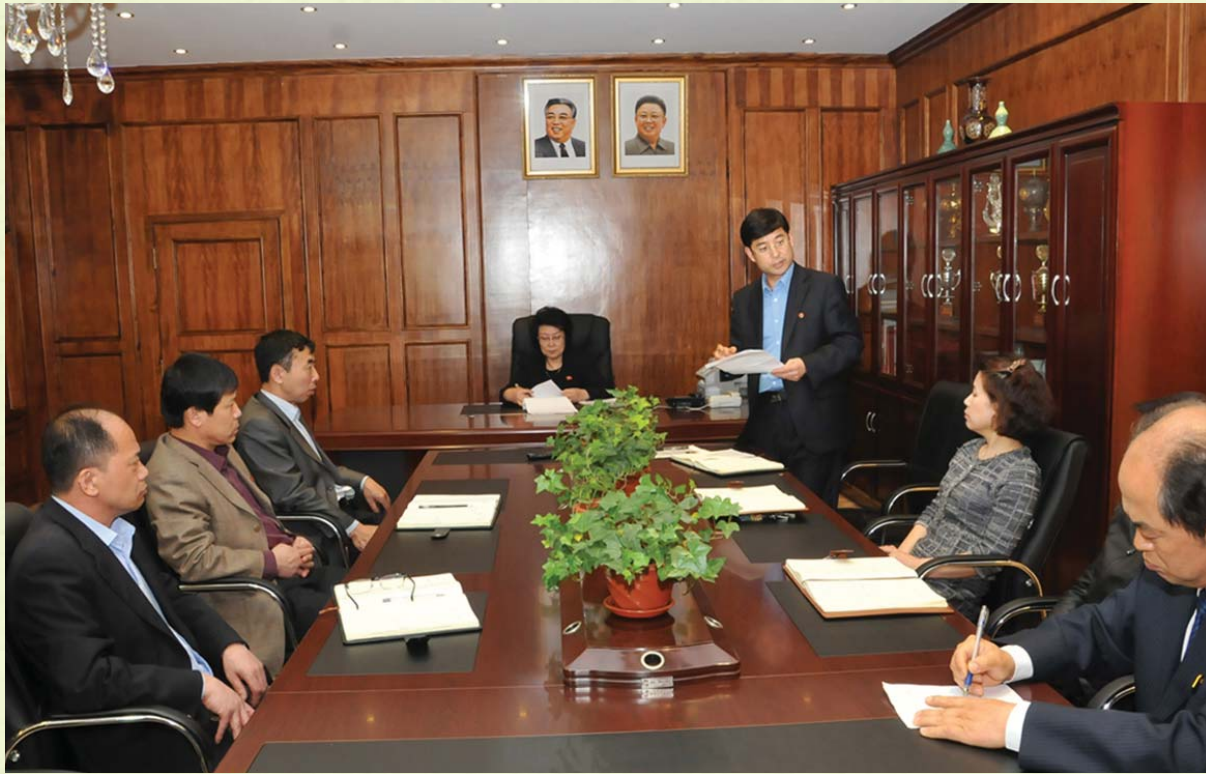
광풍이 아무리 세차도 애국의 자양분이 풍만하고 민족성의 향기가 짙게 풍기는 민족교육의 화원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것은 새 세대들이 창작한 작품들을 보면서 동포들이 더욱 가다듬게 되는 확신이다.

본사기자



# 30돌기의 년륜을 아로새겨 온 애국애족활동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원들

3월 3일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결성 30돐을 맞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조국인민들은

이역에서도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동포사회의 단합을 위하여 애국애족활동을 즐기게 별

려운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동포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보내고있다.

돌이켜보면 주체80(1991)년

3월 3일 중국 료녕성 심양시에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재중조선인본부결성대회로 첫발을 내디딘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자기 발전의 길을 힘차게 걸어왔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걸어온 지난 30년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속에서 참다운 애국애족활동을 벌려온 긍지높은 나날이었다.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을 더 위해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련합회의 대표단들을 조국에 불러주시고 동포들과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으며 동포예술인들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총련합회의 일군들을 국가적인 대회들의 주석단에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고 고무도 해주시었다.

그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며 총련합회 일군들과 동포들은 언제나 조국과 마음을 함께 하였다.

총련합회에서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언제나 정중히 모시고 보위하였으며 중요명절을 맞을 때마다 뜻깊은 경축행사, 기념행사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에서는 총련합회와의 연계밑에 동포청년들이 해마다 항일의 전구들을 답사하여 선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재중조선인본부(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전신) 결성대회  
주체80(1991)년 3월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성원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성원들



재중조선인총련합회기관지 《백두-한나》





사진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재중조선공민들



광명성절경축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중앙보고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7돐경축 보고대회



협회, 지부들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된다.

모두가 친형제가 되어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재중동포전쟁로병대표단



청년절경축행사에 참가한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당시)대표단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였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조국에서 생일상을 받아안았다.

지금도 9년전 3월 -30°C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속에서 서로서로 부촉하며 심심산천의 생눈길을 헤쳐가던 동포청년들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다. 심홍광, 리희웅, 김계순, 김길선, 지명도, 지만금을 비롯한 동포청년들은 수천리 눈길행군속에서 힘이 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펼쳐보며 항일선렬들의 정신세계를 그려보았고 조국의 노래들을 합창하며 자신들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애국의 녀를 굳건히 이어가기 위한 한마음에서였다.

총련합회에서는 조국방문단들과 축하단들을 조국에 보내어 실지체험으로 조국과 숨결을 같이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달 공민학습의 날을 정해놓고 《로동신문》, 잡지 《금수강산》을 비롯하여 조국의 출판물들에 대한 독보와 이야기모임 등을 실감있게 진행하였다. 조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대세력들의 봉쇄책동이 가증될 때면 성명, 담화, 호소문 등을 발표하여 조국인민들과의 련대를 강화하였다.

조국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재중조선공민들





총련합회에서는 동포사회의 단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자기의 활동을 동포들의 생활과 밀착시키고 그들에게 애국의 넋을 심어주며 제기되는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남모르게 애써온 동포일군들, 스스로 많은 일감을 걸머지고 남들보다 많은 길을 걷고 걸어온 동포일군들의 헌신의 자욱은 이루 헤아릴수가 없다. 각지에 흩어져사는 동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애국의 대, 민족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게 하려는것이 조직일군들의 마음이다.

그들의 열성적이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 많은 지부들이 모범지부(3중모범지부)의 영예를 지니었고 수많은 동포들이 모범공민이 되었다.

오늘 동포들은 자기의 가정과 조국을 하나의 뉴대로 잇고 애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총련합회의 일군들과 동포들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며 자신들의 지성을 다 바치였다.

언제나 가슴속에 조국을 안고사는 동포들의 마음은 조국방문의 길에 어리어있다.

동포들은 조국을 방문할 때면 제일먼저 평양의 만수대언덕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우러러 충성의 결의를 다지였다.

그리고 조국의 중요대상건설장들을 찾아 특색있는 기여를 많이 하였다. 그 마음들이 희천발전소,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웃늘이가 한창이다.

등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새겨져있다.

몸은 비록 이역에 살아도 조선민족의 넋을 안고 참되게 살려는것은 동포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우리의 취재수첩갈피마다에는 동포들의 그 모습이 새겨져있다.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후대들에게 우리 말과 글, 우리 민족의 력사와 민속전통을 열성껏 가르치는 연변의 김상지동포, 노래를 불러도 《아리랑》을 비롯한 우리의 민요를 즐겨 부른다는 장춘의 리응수동포, 조선치마저고리를 떨쳐입고 그리도 흥겨이 어깨춤을 추던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공민, 그런가 하면 김치며 토장, 평양



공연을 앞두고

민족무용을 배우고있다.

랭면 등 우리의 민족음식맛이 으뜸이라던 목단강지구협회 녀안사전 지부장 리보배공민...

이렇듯 자기 민족의것을 열렬히 사랑하는 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 동포사회의 민족의 대는 굳세게 이어지고있다.



세상에는 해외교포조직이 많아도 재중조선인총련합회처럼 자기 령도자, 자기 조국을 진심으로 받들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해외교포조직은 흔치 않다.

오늘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조국의 해외동포운동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애국적인 조직으로, 광

범한 동포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영향력있는 조직으로,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그 이름을 빛내고있다.

글 분사기자 홍정혁  
사진 분사기자 김금진,  
임정국, 김성철,  
김영호, 방은심

주체80(1991)년-주체108(2019)년 촬영



동포자녀들이 우리 말과 민족춤가락을 살려나가도록





# 《광물질비타민》-옥류약수

예로부터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이라 불리워 온 조국땅에는 100여개의 약수가 솟아오르고 있다.

그가운데서도 평양의 대동강기슭에서 솟아오르는 옥류약수는 물맛이 독특하고 약효 또한 신비하다.

대동강의 풍치에 어울리게 세워진 옥류약수 상점으로는 날마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약수 봉사를 받고 있다.

중구역 경상동 4인민반의 한신애녀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처녀때부터 몸이 약하고 빈혈이 자주 오곤 하였다. 옥류약수상점맞은켄에서 사는 덕분에 30여년동안 약수를 음료수로뿐 아니라 밥을 지을 때도, 세수를 할 때도 리용하였더니 예순이 지난 오늘까지도 잡병에 걸리지 않았고 얼굴에 티 한점 없다.》

만경대구역 팔골2동의 오영순녀성은 《나는 만성위염과 관절염으로 몇년동안 고생을 했는데 약수를 마신 다음부터 병이 씻은듯이 나왔다. 사계절 가림없이 3일에 한번씩 꼭꼭 이곳에 와서 옥류약수를 받아가는것은 하나의 즐거운 일로 되었다. 옥류약수는 신비한 약샘이다.》라고 말하였다.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약수는 자연의 조화라

고 할수 있다.

하지만 옥류약수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된것은 나라의 인민적시책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옥류교가까이 190여m의 땅속에서 솟아나는 옥류약수는 원가보다 1/80이라는 낮은 값으로 봉사되고 있다.

1억 8천만년전에 형성된 암반을 따라 흐르는 옥류약수는 사람들의 건강에 필요한 칼슘, 나트륨, 수소탄산이온과 같은 각종 광물질들이 2 053mg/L정도 들어있어 일명 《광물질비타민》으로 불리운다.

만성위염, 위 및 십이지장궤양, 간염, 대장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치료와 로화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음천치료, 흡입치료, 세척치료 등 여러가지 방법에도 적용할수 있는 옥류약수는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었다.

옥류약수는 사계절 15°C의 물온도를 유지하며 하루용출량은 수십m<sup>3</sup>이다.

이곳에서 35년을 봉사원으로 일하고있는 홍애순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약수의 덕으로 건강해지는 손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봉사를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 시식회를 통해 본 조선민족음식

- 칠골민속관 주방장 리현식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조선민족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두해전 조선로리협회에서 요리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리현식: 예. 제가 속한 조선로리기술교류대표단은 중국의 길림성 화룡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목적은 화룡시의 기업가들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과 식당 요리사들에게 조선민족음식 만드는 방법을 보급하는것이였습니다.

조선로리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로리》를 본 화룡시 진달래비단길전자과학기술유한공사 총경리는 연변로리협회 회장을 통하여 우리 대표단을 초청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화룡시안의 관광사업도 맡아보고있는데 해마다 봄이 오면 조선족사람들속에서 진달래주제의 축전까지 주관하여 오고있습니다.

공사는 세계각국에서 진달래를 구경하기 위해 온 관광객들에게 조선민족음식까지 맛보인다면 더 인기를 끌수 있을것이라고 보았던것입니다.

기자: 하지만 조선로리기술을 며칠어간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배워준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리현식: 그렇습니다. 민족음식에는 한 민족의 성격과 취미,

감정 그리고 문화수준, 생활풍습 등이 반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되어온것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의 요리기술을 배우기는 힘들것이지만 그 지역에는 대부분 조선족사람들이 살고있기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였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여러 식당의 주방에서 요리를 직접 만들면서 시식회의 방법으로 그곳 요리사들과 공사성원들에게 조선민족음식을 보급하였습니다.

기자: 시식이란 음식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또는 어떤 음식인가를 알기 위하여 시험삼아 맛보는것을 이르는 말로서 시식회라는것은 음식을 시식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리현식: 그렇습니다. 저는 주방장을 20년나마 하였지만 솔직한 말로 중국사람들과 중국에서 사는 조선족사람들이 우리의 음식이 입에 맞겠는가 하는 우려도 다소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우려는 시식회가 진행된 첫날부터 가뭇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는 겨울이였습니다. 저는 날씨가 차기때문에 주식으로 평양온반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손님들에게 평양온반의 유래에 대하여 설명하고는 이것은 평양의 4대음식의 하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흰쌀밥우에 닭고기며 버섯볶음, 룝두지짐, 실닭알 등을 얹고 따끈한 닭고기국물을 부어 내놓았더니 시식회참가자들모두가 이런 밥은 처음 먹어본다며 엄지손가락을 세우는것이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리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평양온반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평양랭면도 냈습니다. 한겨울이지만 시원한랭면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만든랭면을 맛본 중국사람들은 평양랭면은 국물이 그 맛을 살린다고 하면서 아마 무더운 여름철이었다면랭면의 인기가 더 올라갔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자: 김치도 레외는 아니였을것입니다.

리현식: 물론입니다. 김치가





# 정통무도 태권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민족음식의 하나라는것을 그들도 알고있었습니다.

저는 통배추김치, 석박김치, 보쌈김치, 동치미, 깍두기, 갓김치를 비롯하여 김치종류만 해도 10가지나 담그어 맛보였습니다.

공사의 한 조선족인사는 풋절이김치를 맛보고 어릴적에 어머니가 담그어주었던 그 맛과 똑같다고, 오래간만에 맛보니 어머니생각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담근 통배추김치를 맛본 한 중국사람은 《조선사람들은 오랜 생활과정에 겨울에도 먹을수 있게 독특한 남새가공방법을 창안해낸 재능있고 탐구심이 강한 민족이다. 시식회를 통해 우수한 조선민족음식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 \* \*

## 유모아 관한 걱정

소견사를 잘못하여 훈장네 집 곡식에 해를 준 한 목동이 고심끝에 한가지 수를 생각해냈다.

《훈장님네 소가 우리 밭의 곡식을 잘라먹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오리까?》

《소입김은 거름이 된다. 곡식도 푸- 하고 뽀어나오는 소입김을 쏘여야 잘되는 법이란다.》

《정말 그럴소이까?》

《그렇구말구, 하나도 걱정할게 없다.》

《그런걸 괜히 걱정했소이다. 사실은 우리 소가 훈장님네 곡식을...》

《뭐라구?!》

\* \* \*

언제인가 우리는 중국에 살고있는 진대길동포로부터 태권도에 대한 소개를 부탁받은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연길에서 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사업하였던 그는 오늘날 해외에서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태권도란 손에 아무런 흉기나 무기를 가짐이 없이 손과 발 및 신체의 여러 부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무술입니다.

태권도의 《태》는 발꿈치, 《권》은 주먹, 《도》는 정신수양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여기에는 높은 발기술과 손기술, 강한 정신교육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권도는 그 어떤 초인간적이며 환상적인 힘을 키워주는 무술이 아니라 강한 정신수양과 과학적인 원리에 기초한 육체적훈련

과정에 사람이 자기 몸에 지니고있는 모든 정신, 육체적힘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무술입니다.

태권도는 우리 민족이 국가형성시대에 들어서던 반만년전인 단군조선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군은 국가기구안에 무술 및 군사기구를 두고 고조선군을 무장시킬 목적으로 말타기, 활쏘기, 창쓰기, 수박과 같은 무술을 장려하였습니다.

당시 맨몸무술인 수박은 칼이나 창이 부러진 조건에서도 맨주먹으로 적을 쓰러뜨릴수 있는것으로 하여 군사들속에서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고조선에서 창조된 수박을 비롯한 무술은 나라를 지키는데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을뿐아니라 민족체육의 시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구려시기에 이어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수박은 보다 발전되어 택견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택견은 발로 상대방을 타격하여 쓰러뜨리는 기술로서 특징적인것은 발기술을 적극 활용한것이였습니다.

이 시기에 평양의 택견군들을 평양날과람이라고 불렀다는 력사적사실을 통해 민족무술발전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제태권도련맹 초대총재였던 최홍희선생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민족무술을 현대과학기술의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태권도로 발전시키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태권도를 배우려는 애호가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주체55(1966)년 3월 22일 국제태권도련맹(ITF)이 창립되었습니다.

련맹은 5대륙의 수십여개 나라에 민족협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 및 지역태권도경기들

을 조직진행하고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나라에서 생겨나 국제적으로 보급된 체육경기종목이므로 태권도에서 리용하는 용어는 모두 조선말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기본동작, 틀, 맞서기, 단련, 호신술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태권도에는 3 200여개의 기본동작들이 있는데 모든 동작수행에는 과학적인 힘의 원리가 구현되어있습니다.

24개로 이루어진 태권도의 틀은 정해진 자리길을 따라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공격과 방어를 수행하도록 체계화한것입니다.

모든 틀의 명칭이나 동작수 또는 연무선(운동자리길)은 우리 나라 력사적인물들의 이름이나 호, 사건들의 이름을 반영하여 지어졌습니다.

태권도는 10개의 급과 9개의 단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태권도경기장은 틀, 맞서기, 특기, 위력경기를 할수 있게 넓이가 9m×9m이며 바닥은 마루 또는 깔개로 되어있습니다.

태권도복장은 주체71(1982)년

국제태권도련맹이 제정하였는데 저고리와 바지 그리고 띠로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도복이라고 합니다. 도복은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옷색갈을 상징하여 흰색으로 되어있습니다.

수도 평양의 청춘거리에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민족사를 태권도를 통해 보여줄수 있는 무술성지인 태권도성지가 자리잡고있습니다.

태권도성지는 주체101(2012)년 4월 18일 태권도성지관이 개관됨으로써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였습니다.

태권도성지에는 우리 민족의 태권도발전력사를 집대성하여 보여주는 태권도성지관과 함께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태권도과학연구소 그리고 태권도훈련기지로써 세계적으로 제일 큰 태권도전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선의 정통무도 태권도는 전세계 애호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앞으로도 널리 보급, 발전되어갈것입니다.

본사기자 연 옥

국제경기에서 우승한 조국의 태권도선수들





# 그날의 함성은 오늘도

3. 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한세기 이상이 흘렀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떠섰던 조선인민의 항쟁의 함성 소리는 오늘도 울려오는듯싶다.

강압과 협박으로 불법무법의 《을사5조약》(1905년)과 《한일합병조약》(1910년)을 날조하고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전대미문의 공포정치를 실시하면서 온 나라를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일제의 악랄한 폭압은 조선인민을 그들의 파썸통치에 순종하는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가장

잔악무도한 범죄행위였다.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상가집 개만도 못한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오던 조선인민의 원한과 분노는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이날 평양의 각계각층 군중은 낮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대재에 있던 당시의 숭덕녀학교 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여왔다.

시위대렬은 삼시에 10여만명으로 늘어났으며 분노한 항쟁 군중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평양에서 타오른 반일투쟁의 불길은 삼시에 전국을 휩쓸었으며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에게까지 급속히 파급되었다.

봉기는 일어난 때로부터 석달 동안 계속되었으며 항쟁에 참가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수는 수백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존엄있게 살려는 조선인민의 절절한 념원의 분출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제는 3. 1인민봉기를 《폭력집회》, 《란동시위》로 몰아붙이며 헌병과 경찰, 일본군 등 무력이란 무력은 총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였다.

지어 우리 나라에 있던 거류민들에게까지 살인흉기들을 쥐여주어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게 하였다.

당시 적수공권의 시위자들에게 감행한 무차별적인 살륙만행을 두고 일본의 학자인 시노부



까지도 《일본헌병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탄압에 광분하였다. ... 일본헌병의 포악함은 형언할수 없는바 총검으로 찢러죽이고 목을 매달아 처형하였다.》라고 벌어진 사태에 경악을 표시하였다.

력사에 류례없는 일제의 야만적인 살륙만행으로 하여 불과 몇달사이에 1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으며 삼천리강토는 무고한 조선인민의 피로 물들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본은 3. 1인민봉기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비롯한 대중적학살만행과 그외의 모든 죄행들을 전면부정하고있다.

오히려 일본은 저들이 그 무슨 《근대화》를 도왔다고 하면서 피로 얼룩진 과거력사를 외곡하고있다. 그리고 신성한 조선의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기념행사》놀음을 벌리고있는가 하면 야스구니진자참배를 통하여 군국주의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둔갑시키고 침략력사를 찬미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일본은 전범국, 패전국의 지위를 전면부정하는 헌법개약을 공공연히 집요하게 추진하는 한편 해마다 군비를 증강하고 《자위대》의 현대화를 다그치는 등 군국화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이것만 보아도 일본이 어떤 길로 가려 하는가를 충분히 알수 있게 해준다.

지금 침략의 력사를 미화분식하고 군국화책동에 혈안이 되고있는 일본에 대하여 아시아나라



일제는 3. 1인민봉기참가자들을 야수적으로 체포투옥하고 학살하였다.



들은 물론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 상 식

### 선조들이 즐긴 공놀이

사람들은 공을 가지고 하는 놀이들이 유럽에서 현대 체육종목으로 발전하였다고 보고있다.

하지만 력사적으로 보면 멀리 고구려사람들의 전통적인 놀이에서 그것을 찾아볼수 있다. 그중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것이 《격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우리 선조들의 공치기놀이였다. 이미 세나라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격구를 즐겨 놀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공놀이로서 《타구》와 《포구》를 들수 있다.

14세기이전에 발생하여 널리 성행하였던 타구는 공채로 공을 치며 땅우에서 노는 운동놀이로서 현대골프와 류사하였다. 놀이는 2명으로부터 10명까지의 인원

으로 편을 갈라 진행하였다. 타구에서는 공을 적은 회수로 쳐서 먼저 구멍이에 넣는 사람이 이기는것으로 결정하였다.

포구는 일정한 높이에 구멍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공을 던져넣던 놀이였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시기인 1073년에 《포구악》이라는 가무가 공연되었다. 포구악은 무용수들이 춤을 추면서 한사람씩 엇바꾸어 공문에 공을 던져넣는 가무였다. 이것을 통하여 포구가 오늘의 룡구와 같은 놀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공을 가지고 여러가지 놀이를 하며 생활을 즐기였다.

\* \* \*



# 명승-백운산

우리 나라의 명승 백운산은 함경남도 영광군 봉흥리에 자리잡고있다.

백운산줄기의 주봉인 백운산은 예로부터 산마루에 언제나 흰구름을 이고있다고 하여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고 씻기여 이루어진 뾰족한 봉우리들과 깊은 골짜기들, 기묘한 바위들과 옥계수 흘러내리는 골짜기마다에 있는 크고작은 폭포들로 하여 백운산은 경치가 좋기로 소문났다.

특히 백운산의 정점인 짜개봉에서 천고밀림을 배경으로 하여 조선동해의 장엄한 해돋이를 부감하는것은 그야말로 최절경이라고 할수 있다.

봉우리를 짜개놓은것 같다고 하여 짜개봉이라 불리우는 이곳에 오르면 백운산의 기묘한 층암절벽과 울창한 산림, 끝없이 펼쳐진 조선동해의 푸른 물결을 한눈에 바라볼수 있다.

물량이 많은 여름철이면 백운산은 묘향산 만폭동의 일만폭포를 옮겨놓은듯 굽이마다 폭포풍경을 이루어 볼수록 장관이다. 여기에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과 절벽들, 울창한 나무숲과 꽃나무들, 산짐승들이 뛰노는 모습은 폭포의 아름다움을 더한층 돋구어준다.

대자연의 교향곡과도 같은 정서에 저도모르게 심취되게 하는 산주폭포는 물흐르는 소리가

각이한 음향으로 들려올뿐 아니라 30m의 높이에서 맑은 물이 바위를 타고 은구슬, 금구슬이 되어 떨어지는 모습은 볼수록 신비스럽기만 하다.

만장폭포는 바위벽을 타고 쉬임없이 흘러내릴 때에는 흰비단필을 늘어놓은것 같고 바닥에 떨어져 물방울들을 사방에 뿌릴 때에는 억만구슬을 휘뿌리는것 같이 아름답다. 그리고 만장폭포를 응위하려는듯 계곡마다 펼쳐진 층암절벽의 기이하고 호방한 기상은 볼수록 장관이다.

이뿐이 아니다. 백운산에는 사철 물온도의 차이가 없을뿐 아니라 가물때에도 그 물량이 많은것이 특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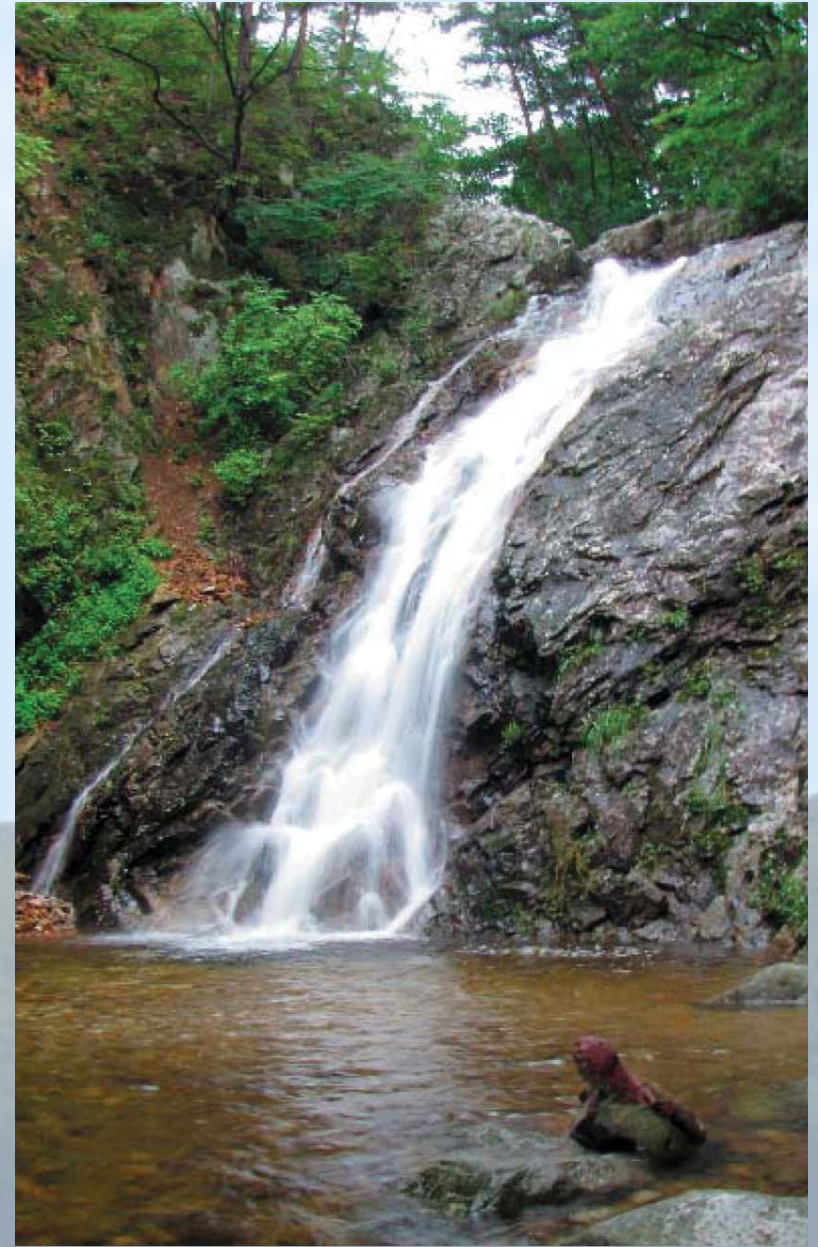
샘물이 있다. 한모금만 마셔도 새 힘과 용기가 솟고 무병장수한다고 하여 이 고장사람들은 먼 옛날부터 이 샘터를 금수샘터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백운산에는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며 세상경치를 다 보았다고 뽐내던 독수리가 백운산의 경치가 하도 멋있어 그만 날개도 접지 못한채 바위로 굳어졌다는 독수리바위와 벼단을 층층이 쌓아놓은것 같이 생긴 난가리바위 등 기묘하게 생긴 바위들도 적지 않다.

백운산에는 고구려시기에 쌓은 백운산성과 고려시기의 절인 룡흥사와 불지암 등 국보적 가치가 큰 력사유적들이 있다.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꾸려진 백운산으로는 수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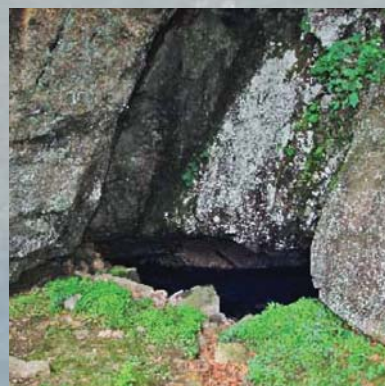


산주폭포

난가리바위



금수샘터



대웅전



## 상 식

### 평 양 종

평양종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는 종각에 걸려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주조된 평양종은 외래침략자들

을 물리치는데서 방위신호수단으로 적극 리용하여왔다. 오늘날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이 종은 1726년에 만든것이다.

종의 질량은 12t 914kg이고 높이는 3.1m이며 아구리직경은 1.6m이다. 종에는 불상, 구름무늬 등이 조각되어있다. 종의 걸고리에는 룡머리가 생동하게 형상되어있다.

오래전부터 평양성에서는 이 종의 소리에 의하여 모든 성문들이 동시에 여닫기였다. 그리고 성안에

서 일어나는 모든 사변들이 이 종소리로 알려졌다.

평양종은 모양이 아름답고 그 소리가 장중하여 사람들속에서 평양의 명물로 알려졌다.

평양종은 당시의 주조기술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 \* \*





해칠보의 달문    본사기자 김춘혁

그 생김 마치 하늘의 달모양과도 같은 해칠보의 달문.  
한쪽끝은 큰 바위산에 박고 다른 끝은 바다물에 잠근 기묘한 모습은 특  
이한 해안절경을 펼친 해칠보의 이채로움을 더해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1-218029  
<http://www.korean-books.com.kp>    E-mail: [flph@star-co.net.kp](mailto:flph@star-co.net.kp)